

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조 은 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은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ehavior, Preferences of the Beauty  
Management and Self-esteem by Types of High School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조 은 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은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ehavior, Preferences of the Beauty  
Management and Self-esteem by Types of High School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조 은 정

조은정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조 은 정

본 연구는 고등학교 유형(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미용관리행동과 미용관리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점과 서로 간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일반/자율 고등학교의 G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G예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S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고등학생(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V.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chi^2$ (Chi-square) 검증,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Two-way ANOVA(이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미용관리행동 및 미용관리 선호도,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과 일반적 특성의 관계에서 피부관리행동은 성별( $p < .001$ ), 학년( $p < .01$ ), 가족형태( $p < .05$ ), 아버지 학력( $p < .05$ ), 어머니 학력( $p < .05$ ), 수면시간( $p < .05$ ), 체형몸매관리행동은 성별( $p < .05$ ), 수면시간

( $p < .05$ ), 미용성형관리행동은 성별( $p < .05$ ), 수면시간( $p < .05$ )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헤어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었다.

둘째,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헤어관리행동을 제외한 모든 미용관리행동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헤어관리행동에서 유의차를 나타냈으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피부관리행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타 학교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셋째,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 선호도를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미용관심도가 높고 체형몸매관리( $p < .05$ ), 미용성형관리( $p < .05$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피부관리( $p < .001$ ), 헤어관리( $p < .05$ ), 체형몸매관리( $p < .01$ ), 미용성형관리( $p < .01$ )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피부관리를, 특성화 고등학교는 체형몸매관리를 중요시하며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미용관리 선호도를 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피부관리로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홈케어 관리를 선호하며( $p < .01$ ) 헤어관리를 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커트,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퍼머를 선호하고( $p < .001$ ) 체형몸매관리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운동을 선호하고( $p < .01$ ), 미용성형관리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부위로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눈,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코를 선호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넷째,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으며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모든 자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적 자아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 고등학교로서 외모에 사회적 기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낮은 것으로 보이며 학교유형에 따라 행동적 자아( $p < .001$ ), 사회적 자아( $p < .01$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따라 미용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인지적 자아( $p < .01$ ), 외모적 자아( $p < .05$ ), 행동적 자아( $p < .01$ ), 사회적 자아( $p < .05$ )에서는 피부관리행동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 그에 따른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헤어관리행동을 제외한 모든 미용관리행동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으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헤어관리행동에만 적극적이고 관심도 매우 낮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는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피부관리를, 특성화 고등학교는 체형몸매관리를 중요시 하였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피부관리행동에서만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에서 유의한 상관을 있으므로 다른 미용관리에서도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이고 올바른 외모에 대한 자아가치관을 형성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뷰티관련 산업에 활로를 모색하고 미용 산업의 잠재적인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고등학교 유형,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1.2 연구의 제한점 .....      | 4  |
| 1.3 용어의 정의 .....       | 4  |
| 1.3.1 고등학교 유형 .....    | 4  |
| 1.3.2 청소년기 .....       | 5  |
| II. 이론적 배경 .....       | 6  |
| 2.1 고등학교 유형 .....      | 6  |
| 2.2 청소년기의 특징 .....     | 8  |
| 2.3 미용관리행동 및 선호도 ..... | 11 |
| 2.3.1 피부관리행동 .....     | 12 |
| 2.3.2 헤어관리행동 .....     | 14 |
| 2.3.3 체형몸매관리행동 .....   | 15 |
| 2.3.4 미용성형관리행동 .....   | 17 |
| 2.4 자아존중감 .....        | 19 |
| III. 연구의 문제 및 가설 ..... | 23 |
| 3.1 연구의 문제 .....       | 23 |
| 3.2 연구의 가설 .....       | 23 |
| 3.3 연구의 모형 .....       | 24 |

|                                          |    |
|------------------------------------------|----|
| IV. 연구방법 .....                           | 25 |
| 4.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                   | 25 |
| 4.2 연구도구 .....                           | 26 |
| 4.2.1 미용관리행동 .....                       | 26 |
| 4.2.2 미용관리 선호도 .....                     | 27 |
| 4.2.3 자아존중감 검사 .....                     | 27 |
| 4.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 28 |
| 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 29 |
|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           | 29 |
| 5.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29 |
| 5.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            | 31 |
| 5.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관리행동 .....            | 35 |
| 5.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 .....          | 37 |
| 5.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 .....          | 39 |
| 5.2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          | 41 |
| 5.2.1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        | 41 |
| 5.2.2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행동 .....        | 42 |
| 5.2.3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 .....      | 43 |
| 5.2.4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 .....      | 44 |
| 5.2.5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전반적 사항 ..... | 45 |
| 5.3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 선호도 .....        | 47 |
| 5.3.1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도 .....                 | 47 |
| 5.3.2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도 .....                | 48 |
| 5.3.3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 .....         | 50 |
| 5.3.4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             | 52 |
| 5.3.5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 .....           | 54 |

|                                        |        |
|----------------------------------------|--------|
| 5.3.6 용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관리 .....    | 55     |
| 5.3.7 미용관리에 대한 선호 .....                | 56     |
| 5.4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         | 62     |
| 5.5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 ..... | 64     |
| <br>VI. 결론 및 제언 .....                  | <br>67 |
| 6.1 결론 .....                           | 67     |
| 6.2 제언 .....                           | 70     |
| <br>참고문헌 .....                         | <br>71 |
| 부    록 .....                           | 78     |
| <br>ABSTRACT .....                     | <br>85 |

## 표 목 차

|                                           |    |
|-------------------------------------------|----|
| 〈표 1〉 연도별 유형별 설립별 고등학교 수(1980~2012) ..... | 7  |
| 〈표 2〉 연구에 사용된 미용관리행동의 내용과 출처 .....        | 26 |
| 〈표 3〉 연구에 사용된 미용관리 선호도의 내용과 출처 .....      | 27 |
| 〈표 4〉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내용과 출처 .....     | 28 |
|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30 |
|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의 차이검증 .....       | 34 |
|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의 차이검증 .....       | 36 |
|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의 차이검증 .....     | 38 |
|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의 차이검증 .....     | 40 |
| 〈표 10〉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검증 .....   | 41 |
| 〈표 11〉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행동 차이검증 .....   | 42 |
| 〈표 12〉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 차이검증 ..... | 43 |
| 〈표 13〉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 차이검증 ..... | 44 |
| 〈표 14〉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전반적 사항 ..... | 45 |
| 〈표 15〉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도 차이검증 .....   | 47 |
| 〈표 16〉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 차이검증 .....   | 49 |
| 〈표 17〉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 차이검증 .....    | 51 |
| 〈표 18〉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차이검증 .....        | 53 |
| 〈표 19〉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 차이검증 .....      | 55 |
| 〈표 20〉 용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관리 차이검증 ..... | 55 |
| 〈표 21〉 피부관리에 대한 선호 차이검증 .....             | 56 |
| 〈표 22〉 헤어관리에 대한 선호 차이검증 .....             | 58 |
| 〈표 23〉 체형몸매관리에 대한 선호 차이검증 .....           | 60 |
| 〈표 24〉 미용성형수술을 한다면 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선호 .....  | 61 |
| 〈표 25〉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      | 63 |
| 〈표 26〉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 ..... | 65 |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자아존중감의 구조 ..... | 22 |
| 〈그림 2〉 연구모형 .....      | 24 |

# I.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시대적,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다각도로 해석되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미적 추구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가 점차 산업화, 분업화되어 가는 근대를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차별화시키고,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어 왔다.

현대에 이르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외모의 미적 추구하고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양적, 질적인 뷰티관련 산업의 성장에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아름다움의 추구는 자기표현에 있어 성에 따른 획일적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남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을 초월하여 확대되었다.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2012)에 의하면 청소년(조사기준 : 15-24세) 중 고등학생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성적, 적성) 59%, 외모/건강 16.6%, 직업 7.9%, 가정환경 4.9%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은 현실의 갈등 속에서도 개성의 표현과 이미지 창출에 적극적인 영상세대의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외모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장기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대중매체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피부를 지닌 날씬하며 가늘고 긴 체형에 대한 이상적인 외모와 자신의 외모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어 좌절하거나 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외모관리행동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나 외모가 사회문화적 기대수준에 불일치하면 신체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것은 점차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Kostanski & Gullone, 1998)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활동 및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정적인 견해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외모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시간과 과도한 비용을 투자하게 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임보형, 2009, p.10)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리행동으로 나타난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외모는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 사회적 성공조건이 되거나 사회적 지위나 부를 상징하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자기외모에 긍정적인 사고는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지만 부정적 사고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김성남, 이경숙, 2007).

외모는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인식되면서 그 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가 증가되는 여러 관리행동 중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을 미용관리행동의 범주에 넣어서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외모에 따른 여러 형태의 관리행동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5~6학년 남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아날리아(2006)는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을 연구하였고 설현진(2010)은 청소년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따른 상관관계를, 김향숙(2012)은 외모관리행동과 식생활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한동조(2009)는 남자고등학생의 외모관리행동 요인과 특성을, 임보형(2009)은 남녀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백수진(2011)은 중 · 고등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외모의 미용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대상이 여자고등학생이나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남자고등학생 뿐 아니라 성인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뷰티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외모관심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뷰티관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미래고객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을 세분화시켜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주로 실업계 및 인문계고등학교의 비교연구가 많고 이러한 학교유형의 구분은 너무 획일적이고 광범위하게 나누어진 연구가 대다수이다(유재순, 1997; 서운경, 2003; 윤영미, 2009; 김효순, 2011).

2010년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함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그에 맞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유사한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를 묶어서 일반고/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의 고등학교 3가지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미용관리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패턴을 알아보고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에 긍정적이고 올바른 외모에 대한 자아가치관을 형성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미래 미용 산업의 잠재고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미용관리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수립계획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경기 및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전국 고등학생을 대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각 1개교만 선정하여 비교 연구함으로 인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미용관리행동 및 선호도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미용학적 측면을 고려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의 객관적인 자료의 제한점이 있다.

## 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3.1 고등학교 유형

2010년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로 4개 유형으로 단순화되었다.

#### 1.3.1.1 일반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는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하며 일반교과위주로 편성되고 교육과정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진다.

#### 1.3.1.2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설립목적에 따라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구분한다.

#### 1.3.1.3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직업특성화 고등학교, 자연 친화적 교육 활동 위주의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체험특성화 고등학교로 구분한다.

#### 1.3.1.4 자율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하는 학교이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구분한다.

### 1.3.2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11세~20세경까지로, 11~14세를 청소년 초기, 15~18세를 청소년 중기, 18~21세를 청소년 후기라고 구분한다(Kagan & Coles, 1972, p.5).

청소년기의 특성은 인간 발달 과정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다.

## Ⅱ. 이론적 배경

### 2.1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유형은 전통적으로 일반계, 전문계, 예체능계 고등학교 유형 외에 특수목적,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으며, 여기에 다시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이 매우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었으나(윤영미, 2009, p.4), 2010년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로 4개 유형으로 단순화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설립목적에 따라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국제 고등학교, 예술·체육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정비되었고,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등은 자율 고등학교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2010년 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고등학교는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일반교과위주로 편성되며 교육과정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지고 전국 학교 중 가장 많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국가에 필요한 특수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고등학교,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계발함으로써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를 포함한 세계의 문화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 고등학교,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교육 지도하는 체육인을 양성 및 창작,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 감동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음악, 미술, 체육, 연극, 영화 등의 예술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예술·체육 고등학교, 기술 명장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산업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구분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성화 고등학교는 직업 또는 체험 특성의 학교로서 직업특성화 고등학교는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농·생명 산업계, 공업계, 상업·정보계, 수산·해운계, 가사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고, 체험특성화 고등학교는

인성교육 등 자연 친화적 교육 활동 위주의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자율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함은 물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는 학교로서 설립주체에 따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구분된다.

〈표 1〉 연도별 유형별 설립별 고등학교 수(1980~2012)

(단위 : 개)

|      | 일반계 |     |       | 전문계 |     |     |      |     |     |     |    |     |
|------|-----|-----|-------|-----|-----|-----|------|-----|-----|-----|----|-----|
|      | 국공립 | 사립  | 전체    | 국공립 | 사립  | 전체  |      |     |     |     |    |     |
| 1980 | 350 | 398 | 748   | 313 | 292 | 605 |      |     |     |     |    |     |
| 1985 | 468 | 499 | 967   | 322 | 313 | 635 |      |     |     |     |    |     |
| 1990 | 519 | 577 | 1,096 | 314 | 273 | 587 |      |     |     |     |    |     |
| 1995 | 486 | 582 | 1,068 | 434 | 328 | 762 |      |     |     |     |    |     |
| 2000 | 579 | 614 | 1,193 | 445 | 319 | 764 |      |     |     |     |    |     |
| 2005 | 739 | 643 | 1,382 | 417 | 296 | 713 |      |     |     |     |    |     |
| 2006 | 786 | 651 | 1,437 | 414 | 293 | 707 |      |     |     |     |    |     |
| 2007 | 804 | 653 | 1,457 | 413 | 289 | 702 |      |     |     |     |    |     |
| 2008 | 838 | 655 | 1,493 | 411 | 286 | 697 |      |     |     |     |    |     |
| 2009 | 876 | 658 | 1,534 | 408 | 283 | 691 |      |     |     |     |    |     |
| 2010 | 897 | 664 | 1,561 | 410 | 282 | 692 |      |     |     |     |    |     |
|      | 일반고 |     |       | 특목고 |     |     | 특성화고 |     |     | 자율고 |    |     |
|      | 국공립 | 사립  | 전체    | 국공립 | 사립  | 전체  | 국공립  | 사립  | 전체  | 국공립 | 사립 | 전체  |
| 2011 | 914 | 640 | 1,554 | 82  | 38  | 120 | 281  | 218 | 499 | 58  | 51 | 109 |
| 2012 | 886 | 643 | 1,529 | 90  | 38  | 128 | 283  | 216 | 499 | 97  | 50 | 157 |

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월말)으로 고등학교 유형이 변경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분석자료-유초·중등교육통계편, p.17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실업계와 인문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의 보건교육을 다룬 유재순(1997),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차이와 관계를 연구한 윤영미(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외톨이 성향을 매개로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비교한 김효순(2011)의 연구 등이 있고 외모와 결부시켜 연구한 서운경(2003)은 또한 실업계와 인문계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를 연구하였는데 외모만족도에서 인문계가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정애와 김용숙(2002)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학교계열을 인문계, 실업계, 예·체능계로 구분하여 섭취조절, 운동, 약물사용, 피부손질, 신체변화, 의복사용, 머리손질, 목욕의 외모관리행동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구분이 실업계와 인문계로서 너무 획일적이고 광범위하게 나누어진 연구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과정이 유사한 일반고와 자율 고등학교를 묶어서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미용관리행동 및 미용관리 선호도,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2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은 인간 발달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기와 같은 흐름에 있다.

그러므로 같은 맥락 속의 청소년기는 시대의 흐름, 법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생리학적으로, 이 시기는 성적 성숙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시기이며, 2차 성장이 나타나고 생식기관이 성숙하는 시기이며(김영화, 최영진, 2012, p.31) 정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자아가 형성되고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시기를 말한다(이소희, 도미향, 정익중, 김민정, 변미희, 2009, p.16).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성인의 연령구분은 일정하지 않으며 관련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통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법(제4조) [법률 제11728호]

는 2013년 7월부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에 관련된 법을 보면 청소년기본법(제3조 1항)[법률 11289호]는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제3조)[법률 제11572호]와 근로기준법[법률 제11270호]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청소년기를 11세~20세경까지를 말하며, 청소년 초기의 중학교 시기와 청소년 후기의 고교 및 대학 시기로 구분하기도 하고(윤진, 1996, p.9) 11~14세를 청소년 초기, 15~18세를 청소년 중기, 18~21세를 청소년 후기라고 구분한다(Kagan & Coles, 1972, p.5).

따라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변화와 인지적 발달을 시작하는 시기에서 추상적인 사고와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다음은 인간 발달 과정적 측면에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기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체적 특성을 보면 청소년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 성적 성숙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신체의 변화들은 2차 성징으로 표현되며 아주 중요한 발달적 의미로 보고 있다(정옥분, 1998, pp.109-110).

신체 · 성적 발달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한 자각을 시작하여 자신의 신체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신과 친구들의 신체변화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신체적 열등감을 갖기도 하는 등(천정웅, 김민, 김진호, 박선영, 2011, p.23)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지적 특성은 사상, 문제, 사실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가능성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각 가능한 것을 말한다(성열준, 강병연, 이채식, 강세현, 황주권, 황수주, 2011, p.19).

이러한 인지발달은 자아정체감이 형성 · 발전되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이에 대처할 자신의 잠재력에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천정웅 외, 2011, pp.23-4).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현실적인 상황과 내면적인 욕구와 상충되어 정서적 불안정 및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특성을 설리반의 성격발달단계이론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사회 내에서 개인적 위치를 확립하려는 욕구,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 유지욕구, 성적 만족 추구욕구를 지녔으나 불만족 할 때 불안과 갈등 및 위기감이 생긴다(김영화, 최영진, 2012, pp.49-50).

청소년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영향을 받던 패턴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립의 욕구를 느낌과 동시에 또래집단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받으면서(천정웅 외, 2011, p.27) 자신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끊임 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로써 미용관리행동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 등의 극적인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는 양적인 신체적 성장과 성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질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성에 치우쳐 자신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성인보다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외부로부터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미용관리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어진 헤어, 피부, 미용성형, 몸매관리 등의 행동들이 증가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한동조, 2009, p.22).

청소년기 중 · 고등학생 시기는 심리 · 정서적으로 타인과의 비교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이고 내면에서는 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여 이 과정에서 자기혐오나 열등감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자아혼란과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현상을 수용하여 자아정체성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자아의 성취와 가능성의 결정 시기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미용관리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2.3 미용관리행동 및 선호도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외모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관리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인들은 타인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으로 표출함으로 뷰티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타인에게 첫인상으로 각인되는 외모는 다른 사람의 외모와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적인 사회적 기준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를 한다.

평가되어진 외모는 좋은 평가 즉 아름다워지기 위해 미용에 대한 다양한 미용관리행동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미용관리행동은 ‘미용’, ‘관리행동’의 합성어로서 미용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창출 해내는 것을 말하며 관리행동은 어떠한 대상을 관찰하거나 보살피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황희순, 1996, p.3-9, 235; 설현진, 2010, p.34).

타인에게 가장 먼저 지각되고 평가되어지는 인간의 외모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한 형태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감, 가치, 태도 등의 정보를 전달하여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언어적 단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Kaiser, 1997, p.94; 한동조, 2009, p.1).

외모에 대한 인식은 현실을 지각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되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행동으로 나타나며(김수진, 2008, p.1), 이러한 외모에 대한 투자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피부미용, 헤어관리, 체형몸매, 미용성형관리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여러 미용관리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은 체중조절행동, 성형수술, 피부관리 및 화장과 관련된 행동유형으로 구분한 연구(김은주, 2001)와 의복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중관리, 신장관리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김정애, 김용숙, 2002; 김아날리아, 2006; 김성남, 이경숙,

2007; 박주연, 2010; 백수진, 2011).

윤소영(2007)은 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한동조(2009)는 심층면접을 통해 패션, 메이크업, 헤어, 피부관리, 몸매관리, 미용성형의 외모관리행동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처럼 외모를 관리하는 유형의 범위는 전반적인 외모에 해당하는 연구가 많고 그 연구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나 일부 비슷한 경향을 지닌 관리행동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학적 시각에서 미용관리행동 범위를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몸매관리, 미용성형관리로 분류하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을 연구하고자 한다.

### 2.3.1 피부관리행동

피부관리는 개인이 가지는 피부타입이나 증상에 맞게 작용하는 제품들을 선택하여 기계나 손을 이용한 다양한 마사지 등을 통해 피부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과학적인 작업으로(김숙은, 2006, p.5)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유지시켜서, 아름답고 건강하며 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 상태의 유지 관리로서, 노화에 대한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과정을 말한다(김향숙, 2007, p.5).

사회적 활동이 갈수록 많아지는 현대인들은 타인과의 접촉에서 깨끗한 피부,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며 또한 자기관리가 완벽하고 성공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변화가 가능한 얼굴이나 피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여성 외모를 변화시키는 도구인 화장은 액세서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오영진, 1995, p.14) 화장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커버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깨끗한 피부를 관리, 유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피부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시켜 자기 충족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민지(2008)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외모만족도는 낮게 나왔으며 외모 중에서 얼굴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현대사회의 성공요인 중에서 외모가 중요하

는 결과가 나왔다.

대인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외모는 그 중요성이 증가할수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피부타입에 따른 미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손상된 피부의 건강상태를 증진, 회복(백인선, 2007, p.37; 천은아, 2008, p.22)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포래집단과 연예인에 대한 동조성이 높은 청소년은 신체적, 성적 성숙과 더불어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여 피부트러블이나 염증, 여드름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고민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이진영, 2013, p.13).

김정애와 김용숙(2002) 연구는 여자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인 성격에 따라서 신체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목욕 및 피부관리와 헤어관리의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수(2004) 연구는 피부관리지식이 높을수록 피부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서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도출하였고 서정민(2011)은 여대생의 피부미용관리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피부미용관리행동은 식생활 실천, 피부미용관리 태도 및 피부미용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피부미용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민영(2009)은 여대생의 미의식이 높을수록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현재의 피부상태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용이 간편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피부관리행동을 많이 하며 저가의 제품이나 홈케어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향숙(2007)의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 중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가 높을수록 피부건강관리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외모관리 행동이 높을수록 피부건강관리 인식이 높았으나 건강증진행위는 낮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종순(200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를 가장 중시하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피부와 몸매관리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피부관리행동은 피부가 지닌 원래의 기능을 가능한 한 완전히 유지시켜 건강하고 깨끗하며 밝게 보이는 피부상태가 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행동을 말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관리행동의 범위를 클린싱, 딥클린싱, 영양애플, 마사지, 마스크 또는 팩 도포하는 행위와 스킨,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의 기초화장품을 바르는 관리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리를 하는 장소에 따라 집, 피부전문관리실 또는 피부전문병원에서 관리·점검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있다.

### 2.3.2 헤어관리행동

헤어스타일은 얼굴과 더불어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설현진, 2010, p.28), 자신의 개성적 표현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관리행동 중 하나이다.

타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외모는 제일 먼저 눈, 입, 얼굴형, 머리카락, 코 순서(Terry & Davis, 1976)로 이미지를 지각하게 되어 전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의 매력을 표출한다.

도주연과 권영숙(1992)의 연구에서는 직모, 컬에 따른 머리상태 따라, 머리 길이에 따라, 앞머리 유무에 따라, 가리마의 위치에 따라 얼굴 이미지가 변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머리카락은 외모를 표현하는 장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이미지 즉 외모에 많은 영향을 주어 얼굴형이나 전반적인 외모를 교정시키는 착시적인 현상을 일으킨다.

이명희(2004)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이 개인의 자신감과 외모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따라 개성, 품위, 여성성, 활동성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남과 이경숙(2007)의 20~4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헤어관리행동 연구에서는 외모관심에 관계없이 헤어스타일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선(2001), 고성현(2003)은 여대생의 모발건강관리태도와 행동으로 건강

한 모발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결에 대한 모발건강과 청결에 대해 언급하여 모발건강에 초점을 두었다.

김리라(2003)는 여대생의 모발미용관리와 행태를 연구하여 모발건강을 중시하였고 더 나아가 모발화장품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남자고등학생의 헤어관리행동에 대해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한 한동조(2009)의 연구에서는 헤어에 있어서 동조성이 보이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외모 중에서 헤어스타일의 비중이 크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헤어관리행동 중 커트가 주를 이루며 두피관리제품 중 두피에는 샴푸, 헤어스타일링 제품에서는 왁스를 선호한다고 나왔다.

이로서 헤어는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표현의 수단으로, 남과 구별할 수 있는 개성적인 표현으로 연출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 특성상 또래집단과 연예인에 대한 동경과 같은 동조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헤어관리에 있어서 헤어관리행동은 염색, 펌, 드라이, 코팅, 영양, 두피 또는 모발 마사지 등의 여러 가지 행동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모발의 건강관리와 미적 추구의 목적을 위해 유지 관리하는 행동을 말한다(윤소영, 2007, p.16; 이주영, 2012, p.13).

이상과 같이 외모에 있어서 헤어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헤어를 관리하는 행동이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에게 학교유형 따라 어떠한 패턴을 양상하고 선호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미래 미용 산업의 잠재고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3.3 체형몸매관리행동

마르고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화두 중 하나가 다이어트이다.

날씬하며 마르고 긴 체형에 대한 열망은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시도하기도 하며, 시도하던 중 포기하거나 요요현상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울증을 일으키며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자신감이 증가할 뿐 아니라 주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체형을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체형이 대중적인 사회적 기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향상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자신감이 저하되며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자아에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그래서 자신의 체형문제에 대한 불만족을 극복하기 위한 체형문제관리행동은 운동이나 식이조절과 같은 올바른 방법 외에도 무조건 굶기, 한 가지 음식만 먹기, 약물섭취(설사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이윤영, 2010, p.15)까지 포함한다.

단기간에 힘들이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는 체형관리가 일반화되면서 마사지, 태닝, 사우나 등과 체형관리실(김은주, 2001, p.18; 박주현, 2010, p.27), 비만관리실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날씬하며 마르고 긴 체형에 대한 선호도는 성인남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층으로 확산되었다. 타인들과의 비교함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또래 적응력(한동조, 2009, p.20)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외모투자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건강을 고려한 방법이 아닌 무조건 굶거나 약을 복용하는 방법(백인혜, 2013, p.16)으로 체형문제를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날씬하며 마르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자신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왜곡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김연희, 1999; 류호경, 윤진숙, 1999; 이미숙, 2000; 박영덕, 김복란, 2006; 김정순, 김영남, 2009). 이처럼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불만족은 무분별한 체중조절행동을 초래하게 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마른체형에 대한 지나친 선호는 신체적 발달기인 청소년에게 왜곡된 체형을 각인시켜,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 사이의 괴리감을 형성시킨다.

이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하여 건강을 등한시하는 외모지향적인 체형문제관리에 집착하게 만든다.

따라서, 체형문제관리행동이란 비만이나 과다체중인 사람이 체지방량을 감

소시켜 체중을 감량하는 것(김지양, 임은혁, 전호경, 2013)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체형이나 몸매를 갖추기 위해 탄력있고 균형잡힌 체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행동이다.

심리적 불안감과 신체적 성장이 공존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은 이상적인 체형몸매에서 벗어난 자신의 외모가 열등감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중 체형몸매관리행동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며 그에 따른 선호도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미래 미용 산업의 주요 잠재고객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3.4 미용성형관리행동

아름다워지기 위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로 인해 현대인들은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몸매관리 뿐만 아니라 미용목적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얼굴 및 신체 일부분을 변형시키는 미용성형과 비수술적인 관리인 미용성형관리의 행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얼굴 및 신체에 칼을 대는 행위 즉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금기시 해 오던 기존의 사회풍조는 퇴색되고 외모, 미용, 심미의 의미에 중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외모지상주의 현실은 미용성형의 대상에 있어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청소년,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미용성형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백인혜, 2013, p.15)로 긍정적인 의식 변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이민영, 2009, p.13) 미용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46.6%로, 23.7%의 부정적인 태도보다 높게 나타내며 성형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윤경, 2005, p.27).

미용성형수술은 일반적으로 재건 성형(Reconstructive Plastic Surgery)과 교정 성형(Corrective Plastic Surgery)구분되고 후자를 미용성형이라고 하고 미용성형수술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미희, 2002, p.7).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백화(2003)의 연구에서는 전체 8%정도가 성형 수술을 경험하였고 앞으로 미용성형수술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과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각각 40.3%와 40%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고등학생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은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사고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성형수술을 자기연출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인혜(2013)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전체 평균 5.4%가 성형수술을 경험하였고 성형희망여부조사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 76%로 나타났으므로 성형에 대한 인식은 양면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백화(2003), 백인혜(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형수술 경험자는 아직은 고등학생이므로 수치상으로 미비한 수준이지만 미용성형수술을 희망하는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미용성형은 문신을 하거나 눈, 코, 얼굴의 윤곽선까지 고쳐 외형적인 변형을 가하여(이미희, 2002, p.2) 외모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안정과 만족을 구하여 심리적인 측면의 개성을 강조하여 신체와 외모에 대한 만족감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윤소영, 2007, p.23)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각 개인에게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미달이 되었다면 불평등을 인지하게 되고 미용성형을 부추기는 성형중독증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과 신체의 성장과 심리적 요인이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은 사회적인 면에서 편향된 외모에 관한 인식으로 인해 얼굴 및 신체의 변형을 고려하게 되어 무분별한 성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중 미용성형관리행동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며 그에 따른 선호도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미래 미용 산업의 주요 잠재고객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 및 영역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 내려지고 구성되고 있지만 학자들의 시각 차이와 여러 연관되어있는 환경적 · 경험적인 요소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맞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Coopersmith(1967, pp.4-5)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관해 만들고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가치를 여기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표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와 감정적인 태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의 평가적인 태도는 결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 좋음과 나쁨에 비중을 두는 반면 감정적인 태도는 선호 또는 만족감에 대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느낌이 어떠한가에 대한 태도이다.

자신이 만족하는 외모와 타인이 인정해 주는 외모의 차이 속에서 민감하게 갈등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의 외모는 평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관련되어, 외모와 자아존중감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 볼 수 있다(김창현, 2011, p.12).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은 평가적 태도와 감정적인 태도 모두 내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평가적 · 감정적 태도라고 정의한다(김희화, 1998, p.14).

자아존중감의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이 생기는 근원은 개인의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아니면 인지적 요소 또는 정서적 요소에 따라 그 근원을 다양하게 탐구(조현임, 2006, p.11)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외적 자아인 사회적 수용과 내적 자아인 유능감이라는 두 차원을 기초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 발생한다면 이는 타인에 의해 거

부당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종합하자면, 자아존중감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 학업, 외모, 행동, 사회 등이 어울려져 형성되는 개념으로 단일적 개념이 아닌 다영역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아존중감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자아존중감의 척도는 Coopersmith의 SEI(Self-Esteem Inventory, 1976), Rosenberg의 SES(Self-Esteem Scale, 1965), Harter(1982, 1985)의 아동용 역량지각척도(PCSC), 역량지각척도(SPPC)로서 이들이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연구되어졌다.

김희화와 김정연(1993)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영역으로 인지적 능력자아, 또래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부정적 자아로 영역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최보가와 전귀연(1993)의 연구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으로 구성하였다.

김희화(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사관련 자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조현임(2006)연구에서는 Coopersmith가 제작한 SEI를 강종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 4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김아날리아(2006)의 연구에서는 Coopersmith의 SEI를 기본으로 한 자아존중감을 4개의 하위영역, 즉 일반 자아존중감, 사회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 가정 자아존중감으로 세분화하고 이들 모두 합하여 총체적 자아존중감으로 정의하였다.

김정민과 이세진(2009)의 연구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척도를 이영자(1996)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였다.

한동조(2009)의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인지적, 외모적, 행동품행, 사회적, 전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에 의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다각적인 학문적 측면에서 Rosenberg(1965), Coopersmith(1976), Harter(1982, 1985)의 척도가 그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만족감을 형성하므로 타인과의 관계에 원만하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재화에 집착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나타나며(김유연, 박성연, 2001) 확신감도 부족하고 의존성이 높고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외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 주관적인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다른 생활 영역까지 영향을 확산되고 결국은 자아존중감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 봄으로서(백수진, 2011, p.13) 외모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중관리행동 및 미용성형관리행동 등으로 표출되게 된다.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과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유림(2005)는 일반 여자고등학생과 무용전공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기 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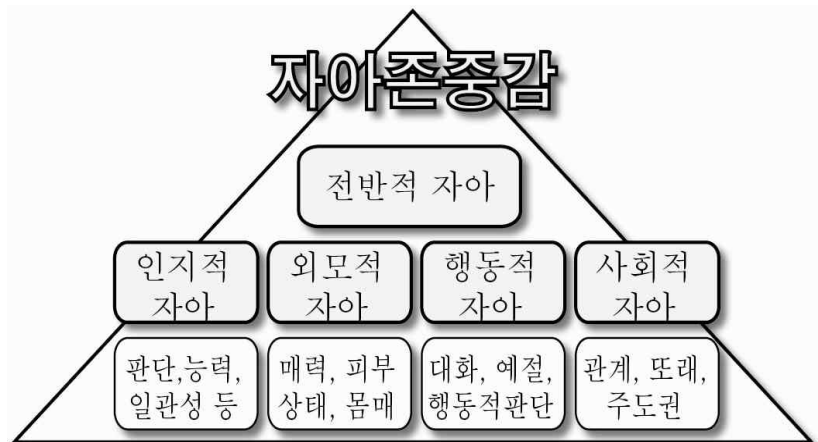
김아날리아(2006)는 프리틴 세대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자아존중감은 헤어관리, 신장관리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정자아존중감은 체중관리와 음의 상관관계를, 학교자아존중감은 헤어관리, 체중관리, 신장관리에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한동조(2009)는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및 신체만족도의 영향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만족도는 패션, 피부와 양의 상관관계, 미용성형은 음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은 의복, 헤어, 피부, 전체외모와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백수진(2011)은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로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청소년에 비해 전문적 외모관리와 체중관리에 적극적이며 BMI가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많이 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장관리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 간의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이은해, 신숙주, 송영주(1992), 김희화(1998), 최희영(2005), 조현임(2006), 한동조(2009), 백수진(2011)의 연구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을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전반적 자아,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5개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자아존중감의 구조

### Ⅲ. 연구의 문제 및 가설

#### 3.1 연구의 문제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은 성별,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한달 용돈, 수면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은 학교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 선호도는 학교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넷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미용관리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2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은 성별,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한달 용돈, 수면시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미용관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미용관리 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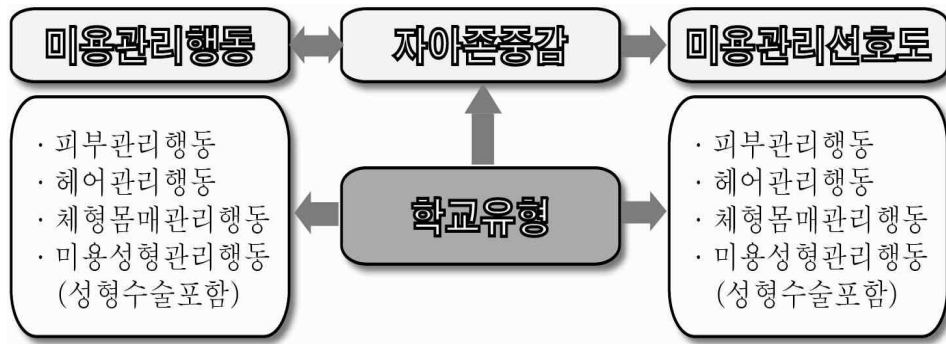
〈가설 IV〉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V〉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미용관리행동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3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 IV. 연구방법

### 4.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 및 서울지역에 소재한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 중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예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중 공업 고등학교 3개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각각 재학 중인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학교에 배부하고 10월 25일까지 모두 회수하였으며 대상은 1, 2학년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을 통해 진행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3개 고등학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고등학교는 서울 광장동 소재의 G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G예술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서울 흥인동에 위치한 S공업 고등학교이다.

각 학교마다 200부씩 총 600부를 배부하여 52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8부 그리고 3학년 학생 49부를 제외한 총 46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청소년 중 고등학교 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청소년시기에서 가장 큰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혼돈 그리고 성숙이 서로 공존하는 시기이며,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를 1, 2학년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시간적 여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되어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4.2 연구도구

### 4.2.1 미용관리행동

본 연구에서는 미용관리행동을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용관리행동은 한동조(2009), 이민영(2009), 설현진(2010), 백수진(2011), 안채리, 조찬위, 임은진(2011), 오별(2012), 이정민(2013)의 연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34문항으로 구성·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미용관리행동을 많이 한다고 평가하였다.

〈표 2〉 연구에 사용된 미용관리행동의 내용과 출처

| 하위영역           |                     | 출처        | 문항수     | 문항번호    |
|----------------|---------------------|-----------|---------|---------|
| 미용<br>관리<br>행동 | 피부관리                | 한동조(2009) | 11문항    | Ⅱ. 1-11 |
|                |                     | 이민영(2009) |         |         |
|                |                     | 백수진(2011) |         |         |
|                |                     | 이정민(2013) |         |         |
|                | 헤어관리                | 한동조(2009) | 7문항     | Ⅱ.12-18 |
|                |                     | 설현진(2010) |         |         |
|                |                     | 백수진(2011) |         |         |
|                | 안채리, 조찬위, 임은진(2011) |           |         |         |
|                | 체형몸매관리              | 한동조(2009) | 10문항    | Ⅱ.19-28 |
|                |                     | 백수진(2011) |         |         |
|                |                     | 오별(2012)  |         |         |
|                |                     | 이민영(2009) |         |         |
| 미용성형관리         | 한동조(2009)           | 6문항       | Ⅱ.29-34 |         |
|                | 안채리, 조찬위, 임은진(2011) |           |         |         |
| 연구자            |                     |           |         |         |

#### 4.2.2 미용관리 선호도

본 연구에서는 미용관리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혜원(2009), 김현주(2011), 신숙자(2013)의 연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측정하였다.

〈표 3〉 연구에 사용된 미용관리 선호도의 내용과 출처

| 연구항목 내용                                                      | 출처                                  | 문항수 | 문항번호   |
|--------------------------------------------------------------|-------------------------------------|-----|--------|
| 미용관리관심도, 경험도, 미용관리에<br>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 미용관<br>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 이혜원(2009)<br>김현주(2011)<br>신숙자(2013) | 4문항 | Ⅲ. 1-4 |
| 미용관리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용관<br>리, 용돈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관리                  | 이혜원(2009)<br>김현주(2011)<br>신숙자(2013) | 2문항 | Ⅲ. 5-6 |
| 미용관리 선호도<br>(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몸매관리, 미<br>용성형관리)                 | 이혜원(2009)<br>김현주(2011)<br>신숙자(2013) | 5문항 | Ⅲ.7-11 |

#### 4.2.3 자아존중감 검사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5)가 제작한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기초해 개발한 이은혜, 신숙주, 송영주(1992), 김희화(1998), 최희영(2005), 조현임(2006), 한동조(2009), 백수진(2011)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 검사의 구성은 크게 전반적 자아,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감정적인 태도에 대한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4〉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내용과 출처

| 하위영역                  |        | 출처                  | 문항수 | 문항번호     |
|-----------------------|--------|---------------------|-----|----------|
| 자<br>아<br>존<br>중<br>감 | 전반적 자아 | 이은해, 신숙주, 송영주(1992) |     |          |
|                       |        | 김희화(1988)           | 2문항 | IV. 1-2  |
|                       |        | 한동조(2009)           |     |          |
|                       | 인지적 자아 | 이은해, 신숙주, 송영주(1992) |     |          |
|                       |        | 최희영(2005)           | 4문항 | IV. 3-6  |
|                       |        | 한동조(2009)           |     |          |
|                       | 외모적 자아 | 김희화(1988)           | 6문항 | IV. 7-12 |
|                       |        | 백수진(2011)           |     |          |
|                       | 행동적 자아 | 최희영(2005)           | 3문항 | IV.13-15 |
|                       |        | 한동조(2009)           |     |          |
|                       | 사회적 자아 | 조현임(2005)<br>연구자    | 5문항 | IV.16-20 |

#### 4.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데이터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V.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미용관리 선호도 차이검증 및 자아존중감(전반적 자아,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학교유형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관리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X^2$ (Chi-square) 검증, Two-way ANOVA(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 5.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 468명이며,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학교유형, 가족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한달 용돈, 하루 수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성별 분포에서 남자는 207명(44.2%), 여자는 261명(55.8%)로 여자의 성별이 약간 많은 편이었고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232명(49.6%), 2학년은 236명(50.4%)이다.

고등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149명(31.8%),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176명(37.6%), 특성화 고등학교는 143명(30.6%)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G예술 고등학교의 설문양이 약간 많았다.

가족형태의 분포는 조부모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형태가 41명(8.8%), 양(쪽)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형태가 352명(75.2%), 한부모 가족형태가 61명(13.0%), 조손 가정형태가 5명(1.1%), 기타 9명(1.9%)로서 양(쪽)부모가 전체의 3/4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15명(3.2%), 고등학교 졸업 136명(29.1%), 대학교 졸업 214(45.7%), 대학원 졸업 80명(17.1%), 기타가 23명(4.9%)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전체적인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전체의 62.8%로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21명(4.5%), 고등학교 졸업 165명(35.3%), 대학교 졸업 213명(45.5%), 대학원 졸업 45명(9.6%), 기타가 24명(5.1%)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이 또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55.1%로 아버지보다는 학력의 분포가 낮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였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구분         | 빈도(N) | 백분율(%) |
|--------|------------|-------|--------|
| 성 별    | 남자         | 207   | 44.2   |
|        | 여자         | 261   | 55.8   |
| 학 년    | 1학년        | 232   | 49.6   |
|        | 2학년        | 236   | 50.4   |
| 학교유형   | 일반/자율 고등학교 | 149   | 31.8   |
|        | 특수목적 고등학교  | 176   | 37.6   |
|        | 특성화 고등학교   | 143   | 30.6   |
| 가족형태   | 조부모+부모     | 41    | 8.8    |
|        | 양(쪽)부모     | 352   | 75.2   |
|        | 한부모        | 61    | 13.0   |
|        | 조손가정       | 5     | 1.1    |
|        | 기타         | 9     | 1.9    |
| 아버지 학력 | 중학교 졸업     | 15    | 3.2    |
|        | 고등학교 졸업    | 136   | 29.1   |
|        | 대학교 졸업     | 214   | 45.7   |
|        | 대학원 졸업     | 80    | 17.1   |
|        | 기타         | 23    | 4.9    |
| 어머니 학력 | 중학교 졸업     | 21    | 4.5    |
|        | 고등학교 졸업    | 165   | 35.3   |
|        | 대학교 졸업     | 213   | 45.5   |
|        | 대학원 졸업     | 45    | 9.6    |
|        | 기타         | 24    | 5.1    |
| 한달 용돈  | 5만원 이하     | 190   | 40.6   |
|        | 5~10만원 이하  | 150   | 32.1   |
|        | 10~15만원 이하 | 58    | 12.4   |
|        | 15~20만원 이하 | 20    | 4.3    |
|        | 20~25만원 이하 | 7     | 1.5    |
|        | 25~30만원 이하 | 18    | 3.8    |
|        | 기타         | 25    | 5.3    |
| 수면시간   | 3시간 이하     | 7     | 1.5    |
|        | 3~5시간 이하   | 89    | 19.0   |
|        | 5~7시간 이하   | 273   | 58.3   |
|        | 7~9시간 이하   | 86    | 18.4   |
|        | 9~11시간 이하  | 5     | 1.1    |
|        | 12시간 이상    | 5     | 1.1    |
|        | 기타         | 3     | 0.6    |
| 합계     |            | 468   | 100.0  |

응답자의 한 달 용돈은 5만원 이하가 190명(40.6%),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는 150명(32.1%), 10만원에서 15만원 이하는 58명(12.4%), 15만원에서 20만원 이하는 20명(4.3%), 20만원에서 25만원 이하는 7명(1.5%), 25만원에서 30만원 이하는 18명(3.8%), 기타 25명(5.3%)로 10만원 이하가 72.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기타의 내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는 3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다는 응답과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3시간 이하 7명(1.5%), 3시간에서 5시간 이하 89명(19.0%), 5시간에서 7시간 이하 273명(58.3%), 7시간에서 9시간 이하 86명(18.4%), 9시간에서 11시간 이하 5명(1.1%), 12시간 이하 5명(1.1%), 기타는 3명(0.6%)이었다. 이처럼 수면시간은 5시간에서 7시간 이하가 58.3%로 가장 많았고 3시간에서 5시간 이하가 19.0%, 9시간에서 11시간 이하가 18.4% 순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5시간에서 7시간 이하의 수면시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 5.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피부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을 성별,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한달 용돈, 수면시간 별 일반적 특성 결과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분석 제시하였다.

〈표 6〉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로, 피부관리행동의 평균은 2.70점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평균 2.39점, 여자는 평균 2.97점으로 여자의 피부관리행동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보다 미용관리행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이는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여자고등학생들의 외모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외모관리행동도 더욱 민감하고 능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으로 확대된다는 이혜정(2011)의 연구와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이 피부건강관리 인식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김향숙(2007), 이미숙(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평균 2.82점, 2학년은 평균 2.61점으로 1학년이 2학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피부관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신지현(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가족형태별 피부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조손가정, 양쪽부모, 기타가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는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5$ ).

학력별 피부관리행동에서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력은 모두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기타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피부관리행동을 선호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모두 피부관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손질을 많이 하는 것(김정애, 김용숙, 2002)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설현진(2010) 및 설현진과 최인려(2010)의 연구와 같이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의 회복을 위해 얼굴에 관련한 외모관리에 더 적극적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

한달 용돈별로 보면 20~25만원 이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타, 25~30만원 이하, 5~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5~20만원, 10~15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용돈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적은 청소년보다 전반적인 외모관리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설현진, 최인려, 2010; 백수진, 2011)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는데 이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을 용돈처럼 사용하여 한달 용돈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고찰된다.

수면시간별로 보면 3시간 이하, 기타, 3~5시간 이하, 5~7시간 이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12시간 이상과 기타

를 제외한 수면시간을 분석해 보면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피부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시간에 따른 피부관리행동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p < .05$ ).

보통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수록 피부건강에 좋다는 보고가 있지만, 학업으로 인한 시간적인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을 겪는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심리로 그 만큼 더 피부건강과 관리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고찰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에 따른 피부건강관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김향숙(2007)의 연구에서는 5시간 이상 수면하는 사람이 5시간 이하 수면하는 사람보다 피부건강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에서는 성별( $p < .001$ ), 학년( $p < .01$ ), 가족형태( $p < .05$ ), 아버지 학력( $p < .05$ ), 어머니 학력( $p < .05$ ), 수면시간( $p < .05$ )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피부관리행동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이, 2학년보다는 1학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은 적을수록 피부관리행동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의 차이검증

| 구분        |            | N   | Mean | SD   | t/F       | P    |
|-----------|------------|-----|------|------|-----------|------|
| 성 별       | 남자         | 207 | 2.39 | 0.71 | 75.958*** | .000 |
|           | 여자         | 261 | 2.97 | 0.72 |           |      |
| 학 년       | 1학년        | 232 | 2.82 | 0.83 | 9.354**   | .002 |
|           | 2학년        | 236 | 2.61 | 0.69 |           |      |
| 가족형태      | 조부모+부모     | 41  | 2.63 | 0.78 | 2.693*    | .030 |
|           | 양(쪽)부모     | 352 | 2.76 | 0.75 |           |      |
|           | 한부모        | 61  | 2.44 | 0.82 |           |      |
|           | 조손가정       | 5   | 2.85 | 1.26 |           |      |
|           | 기타         | 9   | 3.01 | 0.78 |           |      |
| 아버지<br>학력 | 중학교 졸업     | 15  | 2.43 | 0.62 | 2.892*    | .022 |
|           | 고등학교 졸업    | 136 | 2.60 | 0.74 |           |      |
|           | 대학교 졸업     | 214 | 2.79 | 0.79 |           |      |
|           | 대학원 졸업     | 80  | 2.84 | 0.75 |           |      |
|           | 기타         | 23  | 2.47 | 0.83 |           |      |
| 어머니<br>학력 | 중학교 졸업     | 21  | 2.48 | 0.59 | 2.943*    | .020 |
|           | 고등학교 졸업    | 165 | 2.62 | 0.79 |           |      |
|           | 대학교 졸업     | 213 | 2.80 | 0.78 |           |      |
|           | 대학원 졸업     | 45  | 2.89 | 0.71 |           |      |
|           | 기타         | 24  | 2.48 | 0.73 |           |      |
| 한달<br>용돈  | 5만원 이하     | 190 | 2.67 | 0.75 | 1.159     | .327 |
|           | 5~10만원 이하  | 150 | 2.76 | 0.81 |           |      |
|           | 10~15만원 이하 | 58  | 2.58 | 0.79 |           |      |
|           | 15~20만원 이하 | 20  | 2.64 | 0.67 |           |      |
|           | 20~25만원 이하 | 7   | 3.22 | 0.95 |           |      |
|           | 25~30만원 이하 | 18  | 2.82 | 0.88 |           |      |
|           | 기타         | 25  | 2.85 | 0.60 |           |      |
| 수면시간      | 3시간 이하     | 7   | 3.15 | 0.66 | 2.413*    | .026 |
|           | 3~5시간 이하   | 89  | 2.77 | 0.79 |           |      |
|           | 5~7시간 이하   | 273 | 2.76 | 0.75 |           |      |
|           | 7~9시간 이하   | 86  | 2.53 | 0.80 |           |      |
|           | 9~11시간 이하  | 5   | 2.01 | 0.42 |           |      |
|           | 12시간 이상    | 5   | 2.34 | 0.99 |           |      |
|           | 기타         | 3   | 3.00 | 0.00 |           |      |
| 합계        |            | 468 | 2.70 | 0.74 |           |      |

\*  $p<.05$ , \*\*  $p<.01$ , \*\*\*  $p<.001$

### 5.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을 성별,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한달 용돈, 수면시간 별 일반적 특성 결과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분석 제시하였다.

〈표 7〉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로, 헤어관리행동의 평균은 2.20점으로 성별로 보면 남자는 평균 2.12점, 여자는 평균 2.21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헤어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미숙(2013)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헤어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며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2학년보다 헤어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별에서 보면 아버지의 학력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헤어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헤어관리행동을 많이 하지만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설현진(2010), 김정애와 김용숙(2002)연구와 일치하지만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머리손질을 더 많이 한다는 김정애와 김용숙(2002)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한달 용돈별로 보면 유의차는 없지만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머리 손질 등 헤어관리를 많이 하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김정애와 김용숙(2002), 설현진(2010)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않았지만 헤어관리행동에 있어서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이, 2학년보다 1학년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헤어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여자이면서 연령이 높고 한 달 용돈이 15만원 이상 용돈이 많을수록 헤어관리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설현진, 2010)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모든 일반적 특성이 헤어관리행동과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는 현재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에게 헤어관리는 미용관리행동 중에서

학생신분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손쉽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가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의 차이검증

| 구분        |            | N   | Mean | SD   | t/F   | P    |
|-----------|------------|-----|------|------|-------|------|
| 성 별       | 남자         | 207 | 2.12 | 0.79 | 1.665 | .198 |
|           | 여자         | 261 | 2.21 | 0.69 |       |      |
| 학 년       | 1학년        | 232 | 2.18 | 0.76 | .281  | .596 |
|           | 2학년        | 236 | 2.15 | 0.72 |       |      |
| 가족형태      | 조부모+부모     | 41  | 1.95 | 0.65 | 1.458 | .214 |
|           | 양(쪽)부모     | 352 | 2.20 | 0.74 |       |      |
|           | 한부모        | 61  | 2.09 | 0.67 |       |      |
|           | 조손가정       | 5   | 2.48 | 1.42 |       |      |
|           | 기타         | 9   | 2.28 | 0.83 |       |      |
| 아버지<br>학력 | 중학교 졸업     | 15  | 2.05 | 0.74 | .686  | .602 |
|           | 고등학교 졸업    | 136 | 2.16 | 0.77 |       |      |
|           | 대학교 졸업     | 214 | 2.21 | 0.75 |       |      |
|           | 대학원 졸업     | 80  | 2.07 | 0.68 |       |      |
|           | 기타         | 23  | 2.24 | 0.68 |       |      |
| 어머니<br>학력 | 중학교 졸업     | 21  | 2.04 | 0.69 | .252  | .909 |
|           | 고등학교 졸업    | 165 | 2.16 | 0.78 |       |      |
|           | 대학교 졸업     | 213 | 2.18 | 0.74 |       |      |
|           | 대학원 졸업     | 45  | 2.22 | 0.65 |       |      |
|           | 기타         | 24  | 2.10 | 0.72 |       |      |
| 한달<br>용돈  | 5만원 이하     | 190 | 2.09 | 0.71 | 1.866 | .085 |
|           | 5~10만원 이하  | 150 | 2.16 | 0.66 |       |      |
|           | 10~15만원 이하 | 58  | 2.13 | 0.75 |       |      |
|           | 15~20만원 이하 | 20  | 2.25 | 0.95 |       |      |
|           | 20~25만원 이하 | 7   | 2.65 | 1.04 |       |      |
|           | 25~30만원 이하 | 18  | 2.51 | 0.96 |       |      |
|           | 기타         | 25  | 2.38 | 0.87 |       |      |
| 수면시간      | 3시간 이하     | 7   | 2.61 | 1.00 | 1.790 | .099 |
|           | 3~5시간 이하   | 89  | 2.10 | 0.72 |       |      |
|           | 5~7시간 이하   | 273 | 2.17 | 0.71 |       |      |
|           | 7~9시간 이하   | 86  | 2.21 | 0.77 |       |      |
|           | 9~11시간 이하  | 5   | 1.48 | 0.41 |       |      |
|           | 12시간 이상    | 5   | 2.74 | 1.39 |       |      |
|           | 기타         | 3   | 2.09 | 0.81 |       |      |
| 합계        |            | 468 | 2.20 | 0.79 |       |      |

\*  $p<.05$ , \*\*  $p<.01$ , \*\*\*  $p<.001$

#### 5.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을 성별,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한달 용돈, 수면시간별 일반적 특성 결과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분석 제시하였다.

〈표 8〉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로 전체 평균 1.76점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평균 1.62점, 여자는 평균 1.76점으로 여자가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남자보다 더 많이 하며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성별에 따른 체중관리행동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하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윤지혜(2008), 백수진(2011), 이미숙(2013), 이진영(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학년별로 보면 체형몸매관리행동을 1학년이 2학년보다 더 많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면시간별로 보면 12시간 이상, 기타, 3시간 이하, 3~5시간 이하, 5~7시간 이하, 7~9시간 이하, 9~11시간 이하 순으로 12시간 이상을 제외한 수면시간을 분석해 보면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시간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사춘기시기인 7~8주령의 백서를 대상으로 수면과 섭취량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에리자(2010)는 수면박탈기간이 증가할수록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수면시간과 체형몸매관리 즉 체중조절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면서 충분한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면 체중유지 및 체중조절에 더 의식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결국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에서는 성별( $p < .05$ ), 수면시간( $p < .05$ )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이, 2학년보다는 1학년이,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은 적을수록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의 차이검증

| 구분        |            | N   | Mean | SD   | t/F    | P    |
|-----------|------------|-----|------|------|--------|------|
| 성 별       | 남자         | 207 | 1.62 | 0.65 | 5.767* | .017 |
|           | 여자         | 261 | 1.76 | 0.58 |        |      |
| 학 년       | 1학년        | 232 | 1.72 | 0.63 | .396   | .529 |
|           | 2학년        | 236 | 1.68 | 0.59 |        |      |
| 가족형태      | 조부모+부모     | 41  | 1.68 | 0.52 | 1.452  | .216 |
|           | 양(쪽)부모     | 352 | 1.71 | 0.61 |        |      |
|           | 한부모        | 61  | 1.61 | 0.63 |        |      |
|           | 조손가정       | 5   | 1.48 | 0.61 |        |      |
|           | 기타         | 9   | 2.10 | 0.98 |        |      |
| 아버지<br>학력 | 중학교 졸업     | 15  | 1.71 | 0.61 | .170   | .954 |
|           | 고등학교 졸업    | 136 | 1.73 | 0.69 |        |      |
|           | 대학교 졸업     | 214 | 1.70 | 0.59 |        |      |
|           | 대학원 졸업     | 80  | 1.66 | 0.58 |        |      |
|           | 기타         | 23  | 1.72 | 0.54 |        |      |
| 어머니<br>학력 | 중학교 졸업     | 21  | 1.89 | 0.70 | 1.291  | .272 |
|           | 고등학교 졸업    | 165 | 1.69 | 0.65 |        |      |
|           | 대학교 졸업     | 213 | 1.70 | 0.55 |        |      |
|           | 대학원 졸업     | 45  | 1.77 | 0.73 |        |      |
|           | 기타         | 24  | 1.50 | 0.53 |        |      |
| 한달<br>용돈  | 5만원 이하     | 190 | 1.64 | 0.55 | 1.285  | .263 |
|           | 5~10만원 이하  | 150 | 1.72 | 0.64 |        |      |
|           | 10~15만원 이하 | 58  | 1.66 | 0.60 |        |      |
|           | 15~20만원 이하 | 20  | 1.95 | 0.69 |        |      |
|           | 20~25만원 이하 | 7   | 1.77 | 0.95 |        |      |
|           | 25~30만원 이하 | 18  | 1.91 | 0.81 |        |      |
|           | 기타         | 25  | 1.75 | 0.60 |        |      |
| 수면시간      | 3시간 이하     | 7   | 2.14 | 0.78 | 2.789* | .011 |
|           | 3~5시간 이하   | 89  | 1.78 | 0.60 |        |      |
|           | 5~7시간 이하   | 273 | 1.69 | 0.58 |        |      |
|           | 7~9시간 이하   | 86  | 1.58 | 0.62 |        |      |
|           | 9~11시간 이하  | 5   | 1.52 | 0.62 |        |      |
|           | 12시간 이상    | 5   | 2.36 | 1.26 |        |      |
|           | 기타         | 3   | 2.23 | 0.75 |        |      |
| 합계        |            | 468 | 1.76 | 0.67 |        |      |

\* p<.05, \*\* p<.01, \*\*\* p<.001

### 5.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을 성별,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한달 용돈, 수면시간별 일반적 특성 결과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분석 제시하였다.

〈표 9〉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로 평균 1.67점 나타내며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평균 1.47점, 여자는 평균 1.74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미용성형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이 더 많이 미용성형관리행동을 한다는 최백화(2003), 이명희(2004), 백인혜(2013), 이미숙(2013), 이진영(2013)연구와 일치했다.

이것으로 보아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일수록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 미용성형관리행동에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2학년보다 1학년이 더 많이 미용성형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p < .01$ ) 학년이 높을수록 미용성형관리행동에 개방적이다 라는 최백화(2003)와 이진영(2013)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가족형태별 미용성형관리행동을 살펴보면 기타와 양쪽부모가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는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형태와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 < .05$ )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력, 한달 용돈, 수면시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신체변화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연구한 김정애와 김용숙(2002)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에서는 성별( $p < .001$ ), 학년별( $p < .01$ ), 가족형태( $p < .05$ )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이, 2학년보다는 1학년이 미용성형관리행동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의 차이검증

| 구분        |            | N   | Mean | SD   | t/F       | P    |
|-----------|------------|-----|------|------|-----------|------|
| 성 별       | 남자         | 207 | 1.47 | 0.66 | 21.976*** | .000 |
|           | 여자         | 261 | 1.74 | 0.59 |           |      |
| 학 년       | 1학년        | 232 | 1.70 | 0.68 | 7.723**   | .006 |
|           | 2학년        | 236 | 1.54 | 0.58 |           |      |
| 가족형태      | 조부모+부모     | 41  | 1.57 | 0.52 | 2.846*    | .024 |
|           | 양(쪽)부모     | 352 | 1.64 | 0.63 |           |      |
|           | 한부모        | 61  | 1.49 | 0.59 |           |      |
|           | 조손가정       | 5   | 1.56 | 1.17 |           |      |
|           | 기타         | 9   | 2.24 | 1.14 |           |      |
| 아버지<br>학력 | 중학교 졸업     | 15  | 1.54 | 0.63 | 1.147     | .334 |
|           | 고등학교 졸업    | 136 | 1.57 | 0.69 |           |      |
|           | 대학교 졸업     | 214 | 1.69 | 0.65 |           |      |
|           | 대학원 졸업     | 80  | 1.56 | 0.51 |           |      |
|           | 기타         | 23  | 1.53 | 0.60 |           |      |
| 어머니<br>학력 | 중학교 졸업     | 21  | 1.59 | 0.66 | 1.048     | .382 |
|           | 고등학교 졸업    | 165 | 1.59 | 0.69 |           |      |
|           | 대학교 졸업     | 213 | 1.67 | 0.61 |           |      |
|           | 대학원 졸업     | 45  | 1.61 | 0.61 |           |      |
|           | 기타         | 24  | 1.42 | 0.57 |           |      |
| 한달<br>용돈  | 5만원 이하     | 190 | 1.57 | 0.60 | 1.950     | .071 |
|           | 5~10만원 이하  | 150 | 1.66 | 0.63 |           |      |
|           | 10~15만원 이하 | 58  | 1.50 | 0.55 |           |      |
|           | 15~20만원 이하 | 20  | 1.79 | 0.87 |           |      |
|           | 20~25만원 이하 | 7   | 1.59 | 0.59 |           |      |
|           | 25~30만원 이하 | 18  | 2.00 | 0.99 |           |      |
|           | 기타         | 25  | 1.69 | 0.61 |           |      |
| 수면시간      | 3시간 이하     | 7   | 2.02 | 0.86 | 1.997     | .065 |
|           | 3~5시간 이하   | 89  | 1.59 | 0.55 |           |      |
|           | 5~7시간 이하   | 273 | 1.64 | 0.64 |           |      |
|           | 7~9시간 이하   | 86  | 1.52 | 0.65 |           |      |
|           | 9~11시간 이하  | 5   | 1.50 | 0.68 |           |      |
|           | 12시간 이상    | 5   | 2.16 | 0.98 |           |      |
|           | 기타         | 3   | 2.27 | 0.85 |           |      |
| 합계        |            | 468 | 1.67 | 0.69 |           |      |

\*  $p<.05$ , \*\*  $p<.01$ , \*\*\*  $p<.001$

## 5.2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 5.2.1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표 10〉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을 분석 제시한 결과로, 전체 평균 2.70점이며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2.78점, 특수목적 고등학교 평균 2.82점,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2.51점으로 일반/자율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평균보다 높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피부관리행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순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G예술 고등학교가 타 학교보다 외모에 대한 관리를 위해 피부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이는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계열을 인문계, 실업계, 예·체능계로 구분한 김정애와 김용숙(2002)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손질관리에 있어서 실업계, 예·체능계, 인문계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순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일반/자율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피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 차이검증

| 구분   |            | N   | Mean | SD   | F       | P    |
|------|------------|-----|------|------|---------|------|
| 학교유형 | 일반/자율 고등학교 | 149 | 2.78 | 0.80 | 7.119** | .001 |
|      | 특수목적 고등학교  | 176 | 2.82 | 0.76 |         |      |
|      | 특성화 고등학교   | 143 | 2.51 | 0.73 |         |      |
| 합계   |            | 468 | 2.70 | 0.76 |         |      |

\*  $p < .05$ , \*\*  $p < .01$ , \*\*\*  $p < .001$

### 5.2.2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행동

〈표 11〉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을 분석 제시한 결과로, 헤어관리행동의 전체 평균은 2.17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평균 2.26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2.15점, 특수목적 고등학교 평균 2.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보다 헤어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정애와 김용숙(2002)은 학교계열별로 구분하여 나타난 외모관리행동 중 헤어관리행동인 머리손질행동을 보면 예체능계,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 순이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는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보다 헤어관리행동을 더 선호하였는데 피부관리행동에서 학교유형에 따라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보다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피부관리행동보다 헤어관리행동에 더 적극적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11〉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행동 차이검증

| 구분   |            | N   | Mean | SD   | F     | P    |
|------|------------|-----|------|------|-------|------|
| 학교유형 | 일반/자율 고등학교 | 149 | 2.15 | 0.74 | 1.816 | .164 |
|      | 특수목적 고등학교  | 176 | 2.11 | 0.72 |       |      |
|      | 특성화 고등학교   | 143 | 2.26 | 0.75 |       |      |
| 합계   |            | 468 | 2.17 | 0.74 |       |      |

\*  $p < .05$ , \*\*  $p < .01$ , \*\*\*  $p < .001$

### 5.2.3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

〈표 12〉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분석 제 시한 결과로, 체형몸매관리행동의 전체 평균은 1.70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 수목적 고등학교가 평균 1.73점,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1.70점, 일반/자율 고 등학교 평균 1.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G예술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자율 고등학교보다 체형몸매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김정애와 김용숙(2002) 연구에 의하면 약물사용, 섭취조절과 같은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은 적게 한다고 나타났으며 학교계열별 섭취조절행동을 보면 인 문계, 실업계, 예·체능계 순이고 약물사용행동은 실업계, 예·체능계, 인문 계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인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섭취조 절행동과 약물사용행동을 모두 체형몸매관리행동으로 정의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순으 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나 일반/자율 고등학교보다 체형몸 매관리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행동 차이검증

| 구분   |            | N   | Mean | SD   | F    | P    |
|------|------------|-----|------|------|------|------|
| 학교유형 | 일반/자율 고등학교 | 149 | 1.67 | 0.56 | .324 | .723 |
|      | 특수목적 고등학교  | 176 | 1.73 | 0.57 |      |      |
|      | 특성화 고등학교   | 143 | 1.70 | 0.71 |      |      |
| 합계   |            | 468 | 1.70 | 0.61 |      |      |

\*  $p < .05$ , \*\*  $p < .01$ , \*\*\*  $p < .001$

#### 5.2.4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

〈표 13〉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을 분석 제시한 결과로, 미용성형관리행동의 전체 평균은 1.62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평균 1.71점,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1.58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1.56점 순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G예술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자율 고등학교보다 미용성형관리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계열별로 실업계, 예·체능계, 인문계 고등학교 순으로 신체변화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김정애와 김용숙(2002)과 실업계 고등학교일수록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있어서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최백화(2003)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순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나 일반/자율 고등학교보다 미용성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 고등학교의 특성상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보다 외부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극복하고자 미용성형관리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3〉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행동 차이검증

| 구분   |            | N   | Mean | SD   | F     | P    |
|------|------------|-----|------|------|-------|------|
| 학교유형 | 일반/자율 고등학교 | 149 | 1.56 | 0.57 | 2.998 | .051 |
|      | 특수목적 고등학교  | 176 | 1.71 | 0.61 |       |      |
|      | 특성화 고등학교   | 143 | 1.58 | 0.73 |       |      |
| 합계   |            | 468 | 1.62 | 0.64 |       |      |

\*  $p < .05$ , \*\*  $p < .01$ , \*\*\*  $p < .001$

### 5.2.5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전반적 사항

〈표 14〉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미용관리행동 중에서 피부관리행동은 평균 2.70점, 헤어관리행동 평균 2.17점, 체형몸매관리행동 평균 1.70점, 미용성형관리행동 평균 1.62점 순으로 피부관리행동이 가장 높고 미용성형관리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피부손질, 머리 손질과 같은 관리행동을 많이 하고 약물 복용, 섭취 조절, 신체 변화와 같은 위험한 관리행동은 적게 한다고 한 김정애와 김용숙(2002), 여대생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가장 선호하며 화장, 헤어스타일, 성형수술행동 순인 윤소영(2007), 남녀 청소년 대상으로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관리를 통한 전문적인 피부관리와 헤어관리가 높게 나타난 이미숙(2013)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중관리행동,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 순인 이진영(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화장, 피부관리, 미용성형, 몸매관리행동 순으로 몸매관리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한동조(2009)연구에서는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일부 유사하나 그 외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남자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추측된다.

〈표 14〉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전반적 사항

| 학교유형 \ 미용관리<br>행동 | N   | 피부<br>관리행동 |      | 헤어<br>관리행동 |      | 체형몸매<br>관리행동 |      | 미용성형<br>관리행동 |      |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일반/자율고            | 149 | 2.78       | 0.80 | 2.15       | 0.74 | 1.67         | 0.56 | 1.56         | 0.57 |
| 특수목적고             | 176 | 2.82       | 0.76 | 2.11       | 0.72 | 1.73         | 0.57 | 1.71         | 0.61 |
| 특성화고              | 143 | 2.51       | 0.73 | 2.26       | 0.75 | 1.70         | 0.71 | 1.58         | 0.73 |
| 합계                | 468 | 2.70       | 0.76 | 2.17       | 0.74 | 1.70         | 0.61 | 1.62         | 0.64 |

그러나 관리행동 중 의복관리, 신장관리, 체중관리, 미용관리, 전문적 외모 관리 순인 백수진(2011)연구와 메이크업, 헤어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순인 김향숙(2012)연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미용관리행동 중 피부관리행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순이고, 헤어관리행동은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순이며 체형몸매관리행동과 미용성형관리행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관리행동은 미용관리행동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위험 부담감과 비용 부담감으로 인하여 외모관리행동 중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을 가장 낮게 관리행동을 한다고 한 이진영(2013)연구와 일치했다.

이로써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비용적인 문제와 타인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미용성형관리행동이 다른 미용관리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교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피부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에서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많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용관리행동 중 헤어관리행동만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애와 김용숙(2002)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예·체능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피부 손질, 머리손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전반적 사항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순으로 미용관리행동을 하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피부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고 헤어관리행동만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3 고등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 선호도

#### 5.3.1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도

〈표 15〉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 제시된 결과로 미용관리 관심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3.00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몸매관리, 미용성형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관심이 많을수록 외모관리태도인 피부태도, 의복태도, 헤어태도, 화장태도, 성형태도 순이라고 연구한 박주현(2010)과 본 연구의 관심 순서가 일치한다.

또한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평균 3.17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2.96점,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2.88점 순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용관리 중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평균 3.39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3.28점, 특성화고등학교 평균 3.14점 순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5〉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도 차이검증

| 미용관리<br>학교유형 | N   | 피부관리 |      | 헤어관리  |      | 체형몸매관리 |      | 미용성형관리  |      | 합계   |      |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일반/자율고       | 149 | 3.28 | 1.13 | 3.09  | 1.07 | 3.11   | 1.13 | 2.36    | 1.12 | 2.96 | 1.11 |
| 특수목적고        | 176 | 3.39 | 1.09 | 3.28  | 1.03 | 3.34   | 1.07 | 2.65    | 1.20 | 3.17 | 1.10 |
| 특성화고         | 143 | 3.14 | 2.77 | 3.13  | 1.14 | 3.03   | 1.14 | 2.23    | 1.20 | 2.88 | 1.14 |
| 합계           | 468 | 3.27 | 1.66 | 3.17  | 1.08 | 3.16   | 1.11 | 2.41    | 1.17 | 3.00 | 1.12 |
| F            |     | .748 |      | 1.460 |      | 3.423* |      | 5.460** |      |      |      |
| p            |     | .474 |      | .233  |      | .033   |      | .005    |      |      |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리고 헤어관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평균 3.28점,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3.13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3.09점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형몸매관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평균 3.34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3.11점,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3.03점 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미용성형관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평균 2.65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2.36점,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2.23점 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1$ ).

이상과 같이 고등학교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 평균 3.00점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미용관리행동 전반에서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피부관리, 체형몸매관리, 헤어관리, 미용성형관리 순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몸매관리, 미용성형관리 순으로 관심을 나타냈으며,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체형몸매관리( $p < .05$ ) 및 미용성형관리(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5.3.2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도

〈표 16〉은 고등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을 차이 검증하여 분석 제시한 결과로서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도를 살펴보면 평균 1.85점으로 헤어관리, 피부관리, 체형몸매관리, 미용성형관리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평균 1.91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평균 1.86점, 특성화 고등학교 평균 1.79점으로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은 모두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미용관리행위에 있어서 소득이 있고 소비에 주도적인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제한적인 소비를 갖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미용보다는 피부트러블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목적의 관리행위가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용관리 중 피부관리는 일반/자율 고등학교 2.15점, 특수목적 고등학교 2.12점, 특성화고등학교 1.84점 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그리고 헤어관리는 일반/자율 고등학교 2.24점, 특수목적 고등학교 2.18점, 특성화 고등학교 2.00점 순이고 체형몸매관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1.73점, 특성화 고등학교 1.72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1.64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와 체형몸매관리를 받아본 경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미용성형관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1.62점, 특성화 고등학교 1.59점, 일반/자율 고등학교 1.40점으로 평균 1.54점으로 매우 낮은 경험을 보이며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을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모두 헤어관리, 피부관리, 체형몸매관리, 미용성형관리 순이었으며,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피부관리와 헤어관리 경험이 가장 많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체형몸매관리, 미용성형관리의 경험이 다른 고등학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관리( $p < .05$ )와 미용성형관리( $p < .05$ )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표 16〉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 차이검증

| 학교유형 \ 미용관리 | N   | 피부관리   |      | 헤어관리  |      | 체형몸매관리 |      | 미용성형관리 |      | 합계   |      |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일반/자율고      | 149 | 2.15   | 1.25 | 2.24  | 1.29 | 1.64   | 0.83 | 1.40   | 0.64 | 1.86 | 1.00 |
| 특수목적고       | 176 | 2.12   | 1.17 | 2.18  | 1.18 | 1.73   | 0.90 | 1.62   | 0.86 | 1.91 | 1.03 |
| 특성화고        | 143 | 1.84   | 0.98 | 2.00  | 1.07 | 1.72   | 0.88 | 1.59   | 0.81 | 1.79 | 0.94 |
| 합계          | 468 | 2.04   | 1.13 | 2.14  | 1.18 | 1.70   | 0.87 | 1.54   | 0.77 | 1.85 | 0.99 |
| F           |     | 3.264* |      | 1.644 |      | .463   |      | 3.762* |      |      |      |
| p           |     | .039   |      | .194  |      | .630   |      | .024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5.3.3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

〈표 17〉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에 대해 분석결과로서 피부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40.250으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26.12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 환경 32.9%,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리프로그램 30.1%, 특성화 고등학교는 서비스 및 고객관리능력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19.23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15.507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각각 43.0%, 39.2%, 43.4%로 가격이 가장 높게 평가되어 헤어관리에서 가격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형몸매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23.663으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20.090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각각 45.6%, 35.8%로 관리프로그램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25.9%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용성형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26.295으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20.090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각각 36.2%, 32.4%, 30.8%로 모두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 환경을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 차이검증

N(%)

| 구분             |                 | 일반/자율<br>고등학교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특성화<br>고등학교 | 합계         |
|----------------|-----------------|-----------------------|--------------|-------------|------------|
| 피부<br>관리       | 가격              | 7( 4.7)               | 28(15.9)     | 39(27.3)    | 74(15.8)   |
|                | 서비스 및 고객관리능력    | 45(30.2)              | 46(26.1)     | 44(30.8)    | 135(28.8)  |
|                |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환경 | 49(32.9)              | 47(26.7)     | 37(25.9)    | 133(28.4)  |
|                | 관리프로그램          | 47(31.5)              | 53(30.1)     | 19(13.3)    | 119(25.4)  |
|                | 편리한 교통          | 1( 0.7)               | 2( 1.1)      | 4( 2.8)     | 7( 1.5)    |
| 합계             |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40.250^{***}$ | df=8         | p= .000     |            |
| 헤어<br>관리       | 가격              | 64(43.0)              | 69(39.2)     | 62(43.4)    | 103(22.0)  |
|                | 서비스 및 고객관리능력    | 26(17.4)              | 42(23.9)     | 36(25.2)    | 182(38.9)  |
|                |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환경 | 23(15.4)              | 33(18.8)     | 31(21.7)    | 106(22.6)  |
|                | 관리프로그램          | 31(20.8)              | 28(15.9)     | 11( 7.7)    | 68(14.5)   |
|                | 편리한 교통          | 5( 3.4)               | 4( 2.3)      | 3( 2.1)     | 9( 1.9)    |
| 합계             |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19.236^*$     | df=8         | p= .014     |            |
| 체형<br>몸매<br>관리 | 가격              | 11( 7.4)              | 31(17.6)     | 37(25.9)    | 79(16.9)   |
|                | 서비스 및 고객관리능력    | 37(24.8)              | 44(25.0)     | 36(25.2)    | 117(25.0)  |
|                |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환경 | 29(19.5)              | 34(19.3)     | 30(21.0)    | 93(19.9)   |
|                | 관리프로그램          | 68(45.6)              | 63(35.8)     | 36(25.2)    | 167(35.7)  |
|                | 편리한 교통          | 4(2.7)                | 4( 2.3)      | 4( 2.8)     | 12( 2.6)   |
| 합계             |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23.663^{**}$  | df=8         | p= .003     |            |
| 미용<br>성형<br>관리 | 가격              | 17(11.4)              | 40(22.7)     | 42(29.4)    | 99(21.2)   |
|                | 서비스 및 고객관리능력    | 33(22.1)              | 42(23.9)     | 37(25.9)    | 112(23.9)  |
|                |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환경 | 54(36.2)              | 57(32.4)     | 44(30.8)    | 155(33.1)  |
|                | 관리프로그램          | 42(28.2)              | 35(19.9)     | 15(10.5)    | 92(19.7)   |
|                | 편리한 교통          | 3( 2.0)               | 2( 1.1)      | 5( 3.5)     | 10( 2.1)   |
| 합계             |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26.295^{**}$  | df=8         | p= .001     |            |

\*  $p<.05$ , \*\*  $p<.01$ , \*\*\*  $p<.001$

이상과 같이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헤어관리에서는 가격을, 체형몸매관리는 관리프로그램을, 미용성형관리에서는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 환경을, 피부관리에서는 각각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 환경, 관리프로그램을 중요시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피부관리는 서비스 및 고객관리능력을, 헤어관리와 체형몸매관리에서는 가격을, 미용성형관리에서는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 환경을 중요시하였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은 피부관리( $p < .001$ ), 헤어관리( $p < .05$ ), 체형몸매관리( $p < .01$ ), 미용성형관리( $p < .01$ )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5.3.4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표 18〉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에 대한 차이검증을 제시한 결과이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몸매관리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각각 8.559, 14.159, 15.36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15.507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용성형관리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17.96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15.507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몸매관리, 미용성형관리는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모두 TV,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해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친구, 가족, 이웃의 순이었다.

정보탐색 즉 뷰티관련 정보를 많이 탐색할수록 헤어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식이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한 오별(2012)연구처럼 TV,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한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의 영향력은 상당함으로 이에 대한 마케팅 및 효율적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함이 필요하다.

〈표 18〉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차이검증

N(%)

| 구분             |                   | 일반/자율<br>고등학교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특성화<br>고등학교 | 합계         |
|----------------|-------------------|-------------------|--------------|-------------|------------|
| 피부<br>관리       | 병원 및 전문관리실        | 12( 8.1)          | 14( 8.0)     | 14( 9.8)    | 40( 8.5)   |
|                | TV,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 | 84(56.4)          | 100(56.8)    | 74(51.7)    | 258(55.1)  |
|                | 잡지, 신문            | 5( 3.4)           | 9( 5.1)      | 10( 7.0)    | 24(5.1)    |
|                | 친구, 가족, 이웃        | 37(24.8)          | 44(25.0)     | 28(19.6)    | 109(23.3)  |
|                | 기타                | 11( 7.4)          | 9( 5.1)      | 17(11.9)    | 37( 7.9)   |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8.559$    | df=8         | p= .381     |            |
| 헤어<br>관리       | 병원 및 전문관리실        | 3( 2.0)           | 10( 5.7)     | 10( 7.0)    | 23(4.9)    |
|                | TV,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 | 75(50.3)          | 94(53.4)     | 74(74.3)    | 243(51.9)  |
|                | 잡지, 신문            | 7( 4.7)           | 16( 9.1)     | 13(11.0)    | 36( 7.7)   |
|                | 친구, 가족, 이웃        | 50(33.6)          | 40(22.7)     | 28(36.1)    | 118(25.2)  |
|                | 기타                | 14( 9.4)          | 16( 9.1)     | 18(14.7)    | 48(10.3)   |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14.159$   | df=8         | p= .078     |            |
| 체형<br>관리       | 병원 및 전문관리실        | 2( 1.3)           | 12( 6.8)     | 11( 7.7)    | 25( 5.3)   |
|                | TV,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 | 87(58.4)          | 104(59.1)    | 77(53.8)    | 268(57.3)  |
|                | 잡지, 신문            | 8( 5.4)           | 13( 7.4)     | 11( 7.7)    | 32( 6.8)   |
|                | 친구, 가족, 이웃        | 38(25.5)          | 34(19.3)     | 23(16.1)    | 95(20.3)   |
|                | 기타                | 14( 9.4)          | 13( 7.4)     | 21(14.7)    | 48(10.3)   |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15.365$   | df=8         | p= .052     |            |
| 미용<br>성형<br>관리 | 병원 및 전문관리실        | 5( 3.4)           | 17( 9.7)     | 11( 7.7)    | 33( 7.1)   |
|                | TV,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 | 81(54.4)          | 101(57.4)    | 78(54.5)    | 260(55.6)  |
|                | 잡지, 신문            | 9( 6.0)           | 12( 6.8)     | 11( 7.7)    | 32( 6.8)   |
|                | 친구, 가족, 이웃        | 40(26.8)          | 31(17.6)     | 19(13.3)    | 90(19.2)   |
|                | 기타                | 14( 9.4)          | 15( 8.5)     | 24(16.8)    | 53(11.3)   |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17.960^*$ | df=8         | p= .022     |            |

\*  $p<.05$ , \*\*  $p<.01$ , \*\*\*  $p<.001$

피부관리 정보를 습득한 경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얻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친구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고 한 이해원(2009)와 김현주(2011)는 본 연구와는 연구대상에서 서로 다르지만 정보습득 경로는 일치하는데 이는 인쇄물이나 사람간 직접 소통을 통한 방법보다는 시청각적인 영상매체에 더 익숙한 현 세대를 잘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몸매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미용성형관리에서는 유의한 차이( $p < .05$ )를 나타내며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모두 정보습득 과정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매체이므로 그에 대한 노출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TV,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한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고객의 선호도에 맞춘 차별적인 마케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3.5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

〈표 19〉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 차이검증을 제시한 결과이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34.631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26.12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피부관리가 각각 52.3%, 43.8%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체형몸매관리가 3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 특성상 이상적 몸매의 비교대상이 타 학교에 비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기대수준 또한 또래 집단 사이에 높은데서 기인한 결과로 고찰된다.

이상과 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며( $p < .001$ )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

적 고등학교는 피부관리를, 특성화 고등학교는 체형몸매관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 차이검증 N(%)

| 구분                                 | 일반/자율<br>고등학교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특성화<br>고등학교 | 합계         |
|------------------------------------|---------------|--------------|-------------|------------|
| 피부관리                               | 78(52.3)      | 77(43.8)     | 48(33.6)    | 203(43.4)  |
| 헤어관리                               | 12( 8.1)      | 10( 5.7)     | 34(23.8)    | 56(12.0)   |
| 체형몸매관리                             | 51(34.2)      | 71(40.3)     | 51(35.7)    | 173(37.0)  |
| 미용성형관리                             | 3( 2.0)       | 10( 5.7)     | 6( 4.2)     | 19( 4.1)   |
| 기타                                 | 5( 3.4)       | 8( 4.5)      | 4( 2.8)     | 17( 3.6)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chi^2=34.631^{***}$ df=8 p= .000 |               |              |             |            |

\*  $p<.05$ , \*\*  $p<.01$ , \*\*\*  $p<.001$

#### 5.3.6 용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관리

〈표 20〉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한달 동안 받은 용돈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관리에 대한 차이검증을 제시한 결과이다.

〈표 20〉 용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관리 차이검증 N(%)

| 구분                                 | 일반/자율<br>고등학교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특성화<br>고등학교 | 합계         |
|------------------------------------|---------------|--------------|-------------|------------|
| 피부관리                               | 53(35.6)      | 71(40.3)     | 30(21.0)    | 154(32.9)  |
| 헤어관리                               | 19(12.8)      | 23(13.1)     | 44(30.8)    | 86(18.4)   |
| 체형몸매관리                             | 7( 4.7)       | 9( 5.1)      | 22(15.4)    | 38( 8.1)   |
| 미용성형관리                             | 4( 2.7)       | 3( 1.7)      | 2( 1.4)     | 9( 1.9)    |
| 기타                                 | 66(44.3)      | 70(39.8)     | 45(31.5)    | 181(38.7)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chi^2=43.967^{***}$ df=8 p= .000 |               |              |             |            |

\*  $p<.05$ , \*\*  $p<.01$ , \*\*\*  $p<.001$

여기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43.967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26.12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p<.001$ ).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피부관리가 각각 35.6%,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헤어관리에 30.8%로 비중을 더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한달 용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관리를 살펴보면 유의한 상관관계( $p<.001$ )가 있으며 일반/자율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피부관리에 한달 용돈 중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5.3.7 미용관리에 대한 선호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에 대한 선호에 대한 결과는 <표 21>로 이 때 얻어진  $\chi^2$ 의 값은 19.394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16.812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표 21> 피부관리에 대한 선호 차이검증

| 구분                                   | N(%)          |              |             |            |
|--------------------------------------|---------------|--------------|-------------|------------|
|                                      | 일반/자율<br>고등학교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특성화<br>고등학교 | 합계         |
| 집에서 화장품으로 스스로 한다                     | 61(40.9)      | 87(49.4)     | 44(30.8)    | 192(41.0)  |
| 피부과 병원을 통해 관리한다                      | 17(11.4)      | 6( 3.4)      | 9( 6.3)     | 32( 6.8)   |
| 피부관리실을 이용해 관리한다                      | 4( 2.7)       | 7( 4.0)      | 6( 4.2)     | 17( 3.6)   |
|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                         | 67(45.0)      | 76(43.2)     | 84(58.7)    | 227(48.5)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chi^2=19.394^{**}$ df=6    p= .004 |               |              |             |            |

\*  $p<.05$ , \*\*  $p<.01$ , \*\*\*  $p<.001$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45.0%), 집에서 화장품으로 스스로 한다(40.9%), 피부과 병원을 통해 관리한다(11.4%), 피부관리실을 이용해 관리한다(2.7%) 순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집에서 화장품으로 스스로 한다(49.4%),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43.2%), 피부관리실을 이용해 관리한다(4.0%), 피부과 병원을 통해 관리한다(3.4%) 순이며,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58.7%), 집에서 화장품을 스스로 한다(30.8%), 피부과 병원을 이용해 관리한다(6.3%), 피부관리실을 이용해 관리한다(4.2%)의 순이었다.

여자 고등학생의 피부관리 방법으로 과반수 이상이 안 한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홈케어를 한다고 한 신지현(2011)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성인여성의 피부관리 방법으로는 집에서 화장품을 사용해 스스로 한다와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 이해원(2009)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로서 모든 학교유형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가 집에서 화장품으로 스스로 한다보다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관리방법으로써 집에서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아직 성장기인 고등학생은 피부노화에 대한 경각심이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많으므로 피부관리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유의한 상관관계( $p < .01$ )가 있으며 일반/자율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집에서 화장품으로 스스로 한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에 대한 선호에 대한 결과는 <표 22>에 제시하였으며 선호하는 서비스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36.411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26.12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01$ ) 염색 시 선호하는 색상에서 얻어진  $\chi^2$ 의 값은 13.76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18.307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헤어관리 선호하는 서비스를 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는 각각 33.6%, 46.8%로 커트를 가장 선호하였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퍼머(30.7%)를 선호했다.

성형수술보다 머리염색 및 퍼머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이명희(200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헤어관리를 하며 선호서비스는 본 연구에서는 커트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퍼머 및 염색 또한 학교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은 선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헤어관리에 대한 선호 차이검증 N(%)

| 구분           |             | 일반/자율<br>고등학교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특성화<br>고등학교 | 합계         |
|--------------|-------------|------------------------------------|--------------|-------------|------------|
| 선 호<br>서 비 스 | 커트          | 50(33.6)                           | 36(20.5)     | 67(46.8)    | 153(32.7)  |
|              | 퍼머          | 31(20.8)                           | 54(30.7)     | 20(14.0)    | 105(22.4)  |
|              | 블롭드라이       | 8(5.4)                             | 20(11.4)     | 10( 7.0)    | 38( 8.1)   |
|              | 염색          | 30(20.1)                           | 31(17.6)     | 14( 9.8)    | 75(16.0)   |
|              | 기타          | 30(20.1)                           | 35(19.9)     | 32(22.4)    | 97(20.7)   |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36.411^{***}$ df=8 p= .000 |              |             |            |
| 선 호 색 상      | 검정          | 15(10.1)                           | 18(10.2)     | 17(11.9)    | 50(10.7)   |
|              | 진한 갈색(흑갈색)  | 26(17.4)                           | 34(19.3)     | 23(16.1)    | 83(17.7)   |
|              | 밝은 갈색       | 33(22.1)                           | 44(25.0)     | 22(15.4)    | 99(21.2)   |
|              | 와인색(자주색 계열) | 16(10.7)                           | 23(13.1)     | 21(14.7)    | 60(12.8)   |
|              | 염색하지 않는다    | 57(38.3)                           | 47(26.7)     | 55(38.5)    | 159(34.0)  |
|              | 기타          | 2( 1.3)                            | 10( 5.7)     | 5( 3.5)     | 17( 3.6)   |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             | $\chi^2=13.790$ df=10 p= .183      |              |             |            |

\*  $p<.05$ , \*\*  $p<.01$ , \*\*\*  $p<.001$

염색 시 선호하는 색상은 학교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자율 고등학교 38.3%, 특수목적 고등학교 26.7%, 특성화 고등학교 38.5%로 염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을 하는 학생에 한해 선호하는 색상은 일반/자율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각각 22.1%, 25.0%의 밝은 갈색이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는 진한 갈색(25.0%)을 선호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호서비스는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커트를 선호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퍼머를 선호하며, 고등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헤어관리 선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p < .001$ ).

또한 염색 시 선호 색상을 살펴보면 학교유형의 3개 학교에서 염색하지 않는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전체 1/3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밝은 갈색을 특성화 고등학교는 진한 갈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에 대한 선호에 대한 결과는 <표 23>에 제시하였으며 이 때 얻어진  $\chi^2$ 의 값은 29.528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26.217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좀 더 구체적으로 체형몸매관리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운동(55.7%), 식사조절(23.5%), 체형몸매관리를 하지 않는다(16.1%) 순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운동(48.3%), 식사조절(23.9%), 체형몸매관리를 하지 않는다(18.8%) 순이며 특성화 고등학교는 운동(67.1%), 체형몸매관리를 하지 않는다(21.0%), 식사조절(10.5%) 순이었다.

이상과 같이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모든 학교유형에서 모두 운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체형몸매관리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p < .01$ ).

〈표 23〉 체형몸매관리에 대한 선호 차이검증

N(%)

| 구분                                            | 일반/자율<br>고등학교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특성화<br>고등학교 | 합계         |
|-----------------------------------------------|---------------|--------------|-------------|------------|
| 운동                                            | 83(55.7)      | 85(48.3)     | 96(67.1)    | 264(56.4)  |
| 식사조절                                          | 35(23.5)      | 42(23.9)     | 15(10.5)    | 92(19.7)   |
| 약물복용(설사제, 이뇨제, 살빼는 약)                         | 3( 2.0)       | 1( 0.6)      | 0( 0.0)     | 4( 0.9)    |
| 비만전문관리(지방분해주사, 비만마사<br>지관리, 지방흡입술)            | 1( 0.7)       | 5( 2.8)      | 1( 0.7)     | 7( 1.5)    |
| 연고제착용품(지방분해크림, 랩으로 감<br>싸기, 보정속옷입기, 병으로 문지르기) | 0( 0.0)       | 1( 0.6)      | 0( 0.0)     | 1 (0.2)    |
| 다이어트 보조식품(식이섬유, 지방분<br>해식품 등)                 | 3( 2.0)       | 9( 5.1)      | 1( 0.7)     | 13( 2.8)   |
| 체형 몸매관리를 하지 않는다                               | 24(16.1)      | 33(18.8)     | 30(21.0)    | 87(18.6)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chi^2=29.528^{**}$ df=12    p= .003         |               |              |             |            |

\*  $p<.05$ , \*\*  $p<.01$ , \*\*\*  $p<.001$

〈표 24〉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선호에 대한 결과로 이 때 얻어진  $\chi^2$ 의 값은 52.419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하는  $\chi^2$ 의 값 45.31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미용성형수술을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부위는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눈(31.5%), 코(23.5%), 하지 않겠다(23.5%), 턱(8.7%), 가슴(4.0%), 전신(3.4%), 광대뼈(2.7%), 배(2.0%)순으로 나타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코(22.7%), 눈(21.6%), 턱(13.1%), 하지 않겠다(13.1%), 전신(9.1%), 광대뼈(6.3%), 기타(5.7%), 가슴(4.0%), 배(2.3%), 엉덩이(0.6%)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코(21.7%), 하지 않겠다(21.7%), 눈(18.9%), 턱(9.8%), 전신(9.8%), 이마(5.6%), 엉덩이(4.2%) 순이었다.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미용성형수술을 한다면 하고 싶은 부위로 눈을 선호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코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에 대한 수행 의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전신성형수술 즉 신체부위의

성형보다 얼굴부위의 성형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던 이미숙(2013)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모든 학교유형에서 나타나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개방과 폐쇄의 중간정도를 보이고 있어 태도가 양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백화(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학생보다 더 많았지만 앞으로 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여학생을 중심으로 40%를 육박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과 성별에 관계없이 과반수 이상이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수술을 한다면 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선호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표 24〉 미용성형수술을 한다면 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선호 N(%)

| 구분                                  | 일반/자율<br>고등학교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특성화<br>고등학교 | 합계         |
|-------------------------------------|---------------|--------------|-------------|------------|
| 눈                                   | 47(31.5)      | 38(21.6)     | 27(18.9)    | 112(23.9)  |
| 코                                   | 35(23.5)      | 40(22.7)     | 31(21.7)    | 106(22.6)  |
| 턱                                   | 13( 8.7)      | 23(13.1)     | 14( 9.8)    | 50(10.7)   |
| 광대뼈                                 | 4( 2.7)       | 11( 6.3)     | 2( 1.4)     | 17( 3.6)   |
| 이마                                  | 0( 0.0)       | 3( 1.7)      | 8( 5.6)     | 11( 2.4)   |
| 가슴                                  | 6( 4.0)       | 7( 4.0)      | 2( 1.4)     | 15( 3.2)   |
| 배                                   | 3( 2.0)       | 4( 2.3)      | 4( 2.8)     | 11( 2.4)   |
| 엉덩이                                 | 0( 0.0)       | 1( 0.6)      | 6( 4.2)     | 7 (1.5)    |
| 전신                                  | 5( 3.4)       | 16( 9.1)     | 14( 9.8)    | 35( 7.5)   |
| 기타                                  | 1( 0.7)       | 10( 5.7)     | 4( 2.8)     | 15( 3.2)   |
| 하지 않겠다                              | 35(23.5)      | 23(13.1)     | 31(21.7)    | 89(19.0)   |
| 합계                                  | 149(100.0)    | 176(100.0)   | 143(100.0)  | 468(100.0) |
| $\chi^2=52.419^{***}$ df=20 p= .000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5.4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표 25〉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중 전반적 자아를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평균 3.78점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평균 3.75점, 특성화 고등학교는 평균 3.61점으로서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순으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평균 3.18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평균 3.13점, 특성화 고등학교는 평균 3.07점이고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모적 자아를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평균 3.12점, 특성화 고등학교는 평균 3.00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2.98점으로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행동적 자아를 살펴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평균 3.92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3.74점, 특성화 고등학교는 평균 3.56점 순이고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사회적 자아는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평균 3.51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3.37점, 특성화 고등학교는 평균 3.21점 순이고 고등학생의 학교유형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1$ ).

자아존중감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로는 5점 만점 중 전체 자아존중감의 평균 3.4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동조(2009)연구에서 평균 3.22점, 백수진(2011)연구에서 평균 3.32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 행동적 자아는 평균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반적 자아, 사회적 자아,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동조(2009)연구에서 사회적 자아, 행동품행 자아, 전반적 자아, 외모 자아, 인지적 자아존중감 순으로써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전반적 자아, 인지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는 일반/자율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순이나 외모적 자아는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순으로써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예술 고등학교인 점을 감안한다면 자신과 외부변화에 대한 반응과 인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의식하고 외모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외모적 자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보면 학교유형에 따라 행동적 자아( $p<.001$ ), 사회적 자아( $p<.01$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 자아<br>존중감 | 학교유형<br>일반/자율<br>고등학교 |      | 특수목적<br>고등학교 |      | 특성화<br>고등학교 |      | F        | P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
| 전반적 자아    | 3.78                  | 0.78 | 3.75         | 0.76 | 3.61        | 0.88 | 2.005    | .136 |
| 인지적 자아    | 3.18                  | 0.82 | 3.13         | 0.81 | 3.07        | 0.80 | .698     | .498 |
| 외모적 자아    | 3.12                  | 0.71 | 2.98         | 0.78 | 3.00        | 0.82 | 1.501    | .224 |
| 행동적 자아    | 3.92                  | 0.74 | 3.74         | 0.78 | 3.56        | 0.76 | 7.735*** | .000 |
| 사회적 자아    | 3.51                  | 0.70 | 3.37         | 0.69 | 3.21        | 0.78 | 6.061**  | .003 |
| 합계        | 3.50                  | 0.75 | 3.39         | 0.76 | 3.29        | 0.81 |          |      |

\*  $p<.05$ , \*\*  $p<.01$ , \*\*\*  $p<.001$

## 5.5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전반적 자아,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영역으로 구분하여 미용관리행동(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행동)을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중 전반적 자아는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지적 자아는 피부관리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 $p < .01$ ) 이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인지적 자아가 피부관리행동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진영(2013) 연구에서의 학문자아개념은 헤어관리,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의 학문자아개념이 본 연구의 인지적 자아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고찰된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외모적 자아에서는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피부관리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다음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행동적 자아로서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피부관리행동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 $p < .01$ ) 행동적 자아가 피부관리행동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아를 살펴보면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피부관리행동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 $p < .05$ ) 사회적 자아가 피부관리행동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6〉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

| 구분          |          | SS     | MS    | F       | P    |
|-------------|----------|--------|-------|---------|------|
| 학교유형*전반적 자아 | 피부관리행동   | 7.735  | 0.552 | .936    | .519 |
|             | 헤어관리행동   | 8.366  | 0.598 | 1.082   | .371 |
|             | 체형몸매관리행동 | 4.997  | 0.357 | .951    | .504 |
|             | 미용성형관리행동 | 4.469  | 0.319 | .800    | .669 |
| 학교유형*인지적 자아 | 피부관리행동   | 32.071 | 1.035 | 1.923** | .003 |
|             | 헤어관리행동   | 19.764 | 0.638 | 1.177   | .239 |
|             | 체형몸매관리행동 | 13.409 | 0.433 | 1.176   | .241 |
|             | 미용성형관리행동 | 9.364  | 0.302 | .753    | .830 |
| 학교유형*외모적 자아 | 피부관리행동   | 35.146 | 0.857 | 1.503*  | .028 |
|             | 헤어관리행동   | 27.140 | 0.662 | 1.240   | .155 |
|             | 체형몸매관리행동 | 13.935 | 0.340 | .934    | .589 |
|             | 미용성형관리행동 | 21.274 | 0.519 | 1.314   | .100 |
| 학교유형*행동적 자아 | 피부관리행동   | 21.813 | 1.091 | 1.931** | .009 |
|             | 헤어관리행동   | 14.585 | 0.729 | 1.334   | .152 |
|             | 체형몸매관리행동 | 7.954  | 0.398 | 1.071   | .378 |
|             | 미용성형관리행동 | 8.559  | 0.428 | 1.083   | .364 |
| 학교유형*사회적 자아 | 피부관리행동   | 25.142 | 0.811 | 1.483*  | .049 |
|             | 헤어관리행동   | 17.263 | 0.557 | 1.029   | .427 |
|             | 체형몸매관리행동 | 9.312  | 0.300 | .790    | .785 |
|             | 미용성형관리행동 | 11.422 | 0.368 | .923    | .588 |

\* p<.05, \*\* p<.01, \*\*\* p<.001

이진영(2013)의 연구에서 중요타인자아개념은 본 연구의 사회적 자아와 유사하며 중요타인자아개념은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사회적 자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미용관리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에서는 피부관리행동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에 따른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미용관리행동인 헤어관리행동, 체형관리행동, 성형관리행동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 6.1 결론

본 연구는 자신에 대한 판단력이 미숙하고 외부의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성장기 청소년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유형(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미용관리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규명해 청소년기에 긍정적이고 올바른 외모에 대한 자아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삶의 질을 지향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점차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뷰티관련 산업에 활로를 모색해 향후 주요 잠재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경기지역의 일반/자율 고등학교의 G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G예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S공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학교마다 200부씩 총 600부를 배부하여 525부를 회수하여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 및 3학년 학생 설문지 총 57부를 제외한 총 46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V.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chi^2$ (Chi-square) 검증,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Two-way ANOVA(이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몸매관리행동, 미용성형관리행동 순이며 피부관리행동은 성별( $p < .001$ ), 학년( $p < .01$ ), 가족형태( $p < .05$ ), 아버지 학력( $p < .05$ ), 어머니 학

력( $p < .05$ ), 수면시간( $p < .05$ )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헤어관리행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형몸매관리행동은 성별( $p < .05$ ), 수면시간( $p < .05$ )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미용성형관리행동은 성별( $p < .001$ ), 학년( $p < .01$ ), 가족형태( $p < .05$ )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모든 미용관리행동에서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이, 2학년보다 1학년이 더 많이 관리하며 피부관리행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헤어관리행동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체형몸매관리행동은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피부관리행동과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며 이는 수면이 피부 및 체중조절행동에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을 살펴보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순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헤어관리행동을 제외한 모든 미용관리행동을, 특성화 고등학교는 헤어관리행동만 더 많이 하며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관리행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순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G예술 고등학교가 외모에 대한 관리를 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p < .01$ ) 헤어관리행동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헤어관리행동을 많이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체형몸매관리행동과 미용성형관리행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자율 고등학교 순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 선호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용관심도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타 학교유형보다 관심이 높고 체형몸매관리( $p < .05$ ), 미용성형관리( $p < .05$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은 헤어관리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았고 피부관리( $p < .05$ )와 미용성형관리(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에서는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헤어관리에서 가격을, 체형몸매관리는 관리프로그램을, 미용성형관

리에서는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 환경을, 피부관리는 각각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 환경, 관리프로그램을 중요시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피부관리는 서비스 및 고객관리능력을, 헤어관리와 체형몸매관리에서는 가격을, 미용성형관리에서는 제품기계의 수준 및 실내환경을 중요시하며 피부관리( $p<.001$ ), 헤어관리( $p<.05$ ), 체형몸매관리( $p<.01$ ), 미용성형관리( $p<.01$ )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든 미용관리의 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하고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성형관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05$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를 보면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피부관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체형몸매관리로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001$ ), 한 달 동안 받은 용돈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인 미용관리를 보면 모든 학교유형에서 헤어관리 비중이 가장 높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1$ ).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미용관리 선호도에서 피부관리는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집에서 화장품으로 스스로 한다를 선호하였으며( $p<.01$ ) 헤어관리 선호에서는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커트,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퍼머를 선호하였으며( $p<.001$ ) 염색 시 선호하는 색상은 모든 학교유형에서 염색하지 않는다가 대다수이고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밝은 갈색, 특성화 고등학교는 진한 갈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형몸매관리에서는 모두 운동을 선호하고( $p<.01$ ), 미용성형관리에서 미용성형수술을 한다면 하고 싶은 부위로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눈(31.5%)을,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코(22.7%, 21.7%)를 선호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넷째,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평균 3.4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으며 일반/자율 고등학교는 전반적 자아,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가 가장 높고 외모적 자아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 고등학교로서 외모에 사회적 기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낮은 것으로 보이며 학

교유형에 따라 행동적 자아( $p<.001$ ), 사회적 자아( $p<.01$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따라 미용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인지적 자아( $p<.01$ ), 외모적 자아( $p<.05$ ), 행동적 자아( $p<.01$ ), 사회적 자아( $p<.05$ )에서는 피부관리행동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 그에 따른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헤어관리행동을 제외한 모든 미용관리행동에 적극적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용관리는 일반/자율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피부관리를, 특성화 고등학교는 체형몸매관리를 중요시 하였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피부관리행동에서만 인지적 자아, 외모적 자아, 행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므로 다른 미용관리에서도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6.2 제언

이상과 같이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경기 및 서울지역의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는데 경기 및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연구함으로써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고등학교 유형을 단일 비교하였는데 그 이상의 학교유형을 연구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피부관리행동과 체형몸매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도출되어 수면이 피부 및 체중조절에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후속연구뿐 아니라 미용관리행동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고성현. (2003). 『여대생들의 모발건강관리 태도와 실천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고등학교 입학전형 가이드북 펼쳐라! 대한민국고등학교 여기 다 보인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전국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한국개발연구원.
- 김리라. (2003). 『여대생의 모발미용 관리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 김명숙. (2006). 『피부관리학 제3판』. 서울: 현문사.
- 김민지. (2008). 『외모가 현대 사회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 김성남, 이경숙. (2007). 20-40대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1(4), 29-41.
- 김수진. (2008). 『대학생의 피부건강행동과 식생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숙은. (2006). 『성인 남성의 피부지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김아날리아. (2006).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연희. (1999). 『여고생들의 체중조절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화, 최영진. (2012). 『오늘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청소년 복지론

-』. 파주: 정민사.

김유연, 박성연. (2001). 부모 양육태도 및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13.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정순, 김영남. (2009). 남녀 중학생의 체형인식 및 식생활 태도와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5), 123-139.

김정애, 김용숙. (2002).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1), 55-73.

김지양, 임은혁, 전호경. (2013). 여대생의 자기이미지와 미디어관여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7(2), 164-178.

김창현. (2011). 『남성의 패션라이프스타일유형별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김향숙. (2007). 『실업계 고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및 피부건강관리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김향숙. (2012).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올바른 식생활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현주. (2011).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실태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김효순.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과 논문집』, 16(8), 177-188.

김희화, 김정연. (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 구성영역과 발달. 『한국아동학회지』, 14(1), 129-139.

김희화.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도주연, 권영숙. (1992).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 요인과 분석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6(3), 243-250.
- 류호경, 윤진숙. (1999). 청년기 여성의 체형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지 역사회영양학회지』, 4(4), 554-560.
- 박영덕, 김복란. (2006). 속초시 고등학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태도와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23-40.
- 박주현. (2010).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모관리행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백수진. (2011).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백인선. (2007). 『직장인의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비교가 외모정보활용 · 외모 관리 및 패션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원.
- 백인혜. (2013).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성형태도의 관계 : 자아존중감, 자기애의 매개효과와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운경. (2003).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정민. (2011). 『여대생의 피부미용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성열준, 강병연, 이채식, 강세현, 김정일, 황주권, 황수주 공저. (2011). 『청소년문화론』. 파주: 양서원.
- 설현진. (201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설현진, 최인려. (2010). 중·고등학교 여자청소년의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3), 514-525.

- 신숙자. (2013). 『실버타운 거주에 따른 미용관리현황 및 선호도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신지현. (2011).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여고생의 피부 관리 관련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안채리, 조찬위, 임은진(2011). 남자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4), 1-13.
- 오별. (2012). 『중·고등학생의 뷰티관심도와 정보탐색이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오영진. (2005). 『여성의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남부대 산업정보대학원.
- 유재순. (1997). 『고등학교 보건교육의 진단적 연구 : PRECEDE 모형을 근간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 윤영미. (2009). 『학교 유형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지혜. (2007). 『고등학생의 체중조절관심도와 영양지식 및 식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진. (1996). 『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서울: 도서출판 서원.
- 이명희. (2004).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복식문화연구』, 12(6), 971-983.
-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 (2013). 외모도구성이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성별에 따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75-88.

- 이민영. (2009).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미용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피부 관리,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이소희, 도미향, 정익중, 김민정, 변미희. (2009). 『청소년복지론』. 파주: (주)나남.
- 이에리자. (2010). 『수면 박탈이 체중 변화와 내분비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윤경. (2005).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윤영. (2010). 『성인여성의 체형인식과 비만스트레스가 체중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해, 신숙재, 송영주. (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생활과학논문집』, 6, 175-191.
- 이종순. (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관리양상 분석-의복, 피부관리, 몸매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4(2), 384-395.
- 이주영. (2012). 『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 이지수. (2004). 『성인남성의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이진영. (2013). 『중학생의 자아개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원. (2009).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 이혜정. (2011). 『화장관심도와 정보탐색에 따른 여고생의 화장행동과 화장품 구매행동』.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임보형. (2009).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유림. (2005). 『여학생이 신체적 자기 지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조성선. (2001). 『여대생의 모발건강관리에 피부건강행동과 식생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현임. (2006). 『청소년기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동조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천은아. (2008). 『직장 여성의 자기 계발과 피부관리 행동 패턴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 천정웅, 김민, 김진호, 박선영. (2011). 『차세대 청소년학총론』. 파주: 양서원.
- 최백화. (2003).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3.
- 통계청. (2012).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대전: 강문인쇄사.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교육통계 분석자료-유·초·중등교육통계편』. 서울: 경성출판사.
- 한동조. (2009). 『남자고등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문화기술학적 분석: 패션, 메이크업, 몸매관리, 헤어, 피부관리,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황희순. (1996). 『미용학개론』. 서울: 청구문화사.

## 2. 국외문헌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Praeger Publisher.

Kostanski, M., and Gullone, E. (1998). Adolescent body image dissatisfaction :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controlling for body ma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2), 255-262.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_\_\_\_\_.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lo: University of Denver.

Kagan, J., and Coles, R. (1972). *Twelve to Sixteen Early Adolescence*. New York : Norton.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erry, R. L., and Davis, J. S.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2(3), 918-918.

##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학교유형별 고등학생의 미용관리행동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되어진 설문지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작성을 위한 순수한 학문적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사적 비밀이 보장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나 개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을 성심껏 작성해 주시면 바랍니다.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3년 10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 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박영은

연구자 : 조은정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문항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여(            )
  
2.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귀하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① 일반계/자율형 고등학교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과학·예술고)  
③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 특성화고) ④ 기타 \_\_\_\_\_
  
4.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①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부모                      ② 양(쪽)부모                                              ③ 한부모  
④ 조손가정(할머니/할아버지+손자/손녀) ⑤ 기타 \_\_\_\_\_
  
5. 귀하의 부모님 학력은?            1) 아버지(            )            2) 어머니(            )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_\_\_\_\_
  
6. 귀하의 한 달 용돈은?  
① 5만원 이하                                              ② 5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  
③ 10만원 이상 ~ 15만원 이하                                              ④ 15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⑤ 20만원 이상 ~ 25만원 이하                                              ⑥ 25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⑦ 기타 \_\_\_\_\_
  
7. 귀하의 하루 수면 시간은?  
① 3시간 이하                      ② 3~5시간 이하                      ③ 5~7시간이하  
④ 7~ 9시간 이하                      ⑤ 9~11시간 이하                      ⑥ 12시간 이상                      ⑦ 기타 \_\_\_\_\_

Ⅱ. 다음은 미용관리행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문항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br>다 | 매우<br>그렇다 |
|---------------------------------------------|-----------------|-----------|----------|---------|-----------|
| 1. 피부고민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피부관리를 위해 세안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세안 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피부관리를 위해 피부전문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피부관리를 위해 피부전문관리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집에서 피부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팩 (마스크팩, 천연팩 등)을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세안 후 기초화장품을 바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피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 병원이나 피부관리실을 찾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머리모양을 자주 바꾼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외출 시 머리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헤어왁스 등을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외출 시 머리를 헤어관리도구(드라이기 및 고데기 등)를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을 따르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미용실 및 모발전문병원에서 두피, 모발관리를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모발상태가 좋아지도록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에 신경을 쓰면서 먹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신경을 쓰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br>다 | 매우<br>그렇다 |
|--------------------------------------------------------------------|-----------------|-----------|----------|---------|-----------|
| 21.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거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몸매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몸매관리를 위해 약물(이노제, 설사제, 살빼는 약 등)을 복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몸매관리를 위해 비만전문관리(지방분해주사, 비만 마사지 관리,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5. 몸매관리를 위해 연고제착용품(지방분해크림, 랩으로 감싸기, 보정 속옷입기, 병으로 문지르기)을 사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6. 몸매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7.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 후 일부러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8. 체중조절과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 보조식품(식이섬유, 지방분해식품 등)을 먹는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9. 해나 또는 미용타투(문신) 등을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 노출부위의 털을 제모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 얼굴이나 몸의 점을 빼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눈썹, 속눈썹연장술 및 아이라인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3.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4. 셀프미용기구(페이스롤러, 코집게, 쌍꺼풀안경, 광선조사기, 다리교정벨트 등)를 사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Ⅲ. 다음은 미용관리선호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문항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는 다음 미용관리행동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까?

|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피부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헤어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체형·몸매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미용성형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2. 귀하는 다음 미용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피부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헤어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체형·몸매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미용성형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3. 귀하는 다음 미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가격 | 서비스 및<br>고객관리<br>능력 | 제품·기계의<br>수준 및<br>실내환경 | 관리<br>프로그램 | 편리한<br>교통 |
|---------|----|---------------------|------------------------|------------|-----------|
| 피부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헤어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체형·몸매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미용성형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4. 귀하의 다음 미용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경로는 무엇입니까?

|         | 병원 및<br>전문관리실 | TV, 라디오,<br>인터넷,<br>대중매체 | 잡지,<br>신문 | 친구,<br>가족,<br>이웃 | 기타 |
|---------|---------------|--------------------------|-----------|------------------|----|
| 피부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헤어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체형·몸매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 미용성형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5.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용관리행동은?

- ① 피부관리                      ② 헤어관리                      ③ 체형·몸매관리  
④ 미용성형관리              ⑤ 기타 \_\_\_\_\_

6. 귀하의 한 달 용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 ① 피부관리                      ② 헤어관리                      ③ 체형·몸매관리  
④ 미용성형관리              ⑤ 기타 \_\_\_\_\_

7. 귀하가 피부관리행동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집에서 화장품으로 스스로 한다.      ② 피부과 병원을 통해 관리한다.  
③ 피부관리실을 이용해 관리한다.      ④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

8. 귀하가 헤어관리행동 중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커트                              ② 퍼머                              ③ 볼륨드라이  
④ 염색                              ⑤ 염색을 하지 않는다.

9. 귀하가 헤어관리행동 중 염색 시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무엇입니까?

- ① 검정                              ② 진한 갈색(흑갈색)              ③ 밝은 갈색  
④ 와인색(자주색 계열)              ⑤ 염색하지 않는다.              ⑥ 기타 \_\_\_\_\_

10.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체형·몸매관리 행동은 무엇입니까?

- ① 운동                      ② 식사조절                      ③ 약물복용(설사제, 이뇨제, 살빼는 약)  
④ 비만전문관리(지방분해주사, 비만마사지관리, 지방흡입수술)  
⑤ 연고제착용품(지방분해크림, 랩으로 감싸기, 보정속옷입기, 병으로 문지르기)  
⑥ 다이어트 보조식품(식이섬유, 지방분해식품 등)      ⑦ 하지 않는다.

11. 귀하가 미용성형수술을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부위는 어느 곳입니까?

- ① 눈      ② 코      ③ 턱      ④ 광대뼈      ⑤ 이마      ⑥ 가슴  
⑦ 배      ⑧ 엉덩이      ⑨ 전신      ⑩ 기타(다른 부위) \_\_\_\_\_      ⑪ 하지 않겠다.

IV.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문항에 V를 하거나 알맞은 말을 적어 주십시오.

|                                   | 매우<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br>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다른 친구들만큼 똑똑하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대부분 교과목이 공부하기가 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매력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나의 몸매가 만족스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내 피부상태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내 머릿결은 윤기가 나고 건강한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나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나는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나는 또래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나는 타인에게 자신있게 의사표현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ABSTRACT

### A Study on the Behavior, Preferences of the Beauty Management and Self-esteem by Types of High School

Cho, Eun-Jeong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beauty management behavior and beauty management prefer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ir self-esteem on the beauty management behavior. The study was conducted by the surveying 468 high school students of general high school, vocational(beauty) high school, and special(art) high school.

The high school student was the unit of analysis. The high school was divided into general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and special high school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Gyeonggi Office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eauty management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was the order of skin management behavior, hair management behavior,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and beauty cosmetic surgery management behavior. Skin management behavior with general propert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ed with sex( $p < .001$ ), school grade( $p < .01$ ), family type( $p < .05$ ), fathers' scholastic ability( $p < .05$ ), mothers' scholastic ability( $p < .05$ ), and sleep type( $p < .05$ ), however, hair management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ach sub variables.

Second, in terms of the skin care management behavio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 order of special purpose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p < .01$ ).

Third, answering the prefer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beauty management, special purpose high schoo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ly related with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p < .05$ ), and beauty cosmetic surgery management behavior( $p < .05$ ). Answering the top priority for beauty management order to high school, all types of schoo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ed with all kinds of beauty managements; skin management behavior( $p < .001$ ), hair management behavior( $p < .05$ ),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p < .01$ ), and beauty cosmetic surgery management behavior( $p < .01$ ).

Fourth, self-esteem of all types had a generally highly estimation of 3.40 on average. high school students in general schools had more general self-esteem, cognitive self-esteem, than special purpose schools, and vocational schools, in order. In the case of the appearance self-esteem, the order was general school, vocational school, and special purpose school. In this contex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behavior self-esteem( $p < .001$ ) and social

self-esteem( $p < .01$ ).

Fifth, answering the self-esteem of high school students' beauty management, each self-esteem, like as cognitive self-esteem( $p < .01$ ), appearance self-esteem( $p < .05$ ), behavioral self-esteem( $p < .01$ ) and social self-esteem( $p < .05$ )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kin care management respectively.

Based on this study, high school students had an inclination to have a skin care management behavior. They had an interest in skin care management, body shape management,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in terms of beauty management.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 of self-esteem in beauty management. Consequently, this change would be capacity building of positive appearance. That is to say, in considering saturation of beauty industry, this study will provide a foundation of beauty-related industry information.

【Keywords】Types of high school, Adolescence, Beauty management behavior, Beauty management preferences, Self-esteem.